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는

학생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책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이 협력하여 발간하는 학생중심 독서정보지입니다.

2019 | Vol. 49



message

The reading of all good books is
like a conversation with
the finest men of past centuries.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르네 데카르트 Rene Descartes
프랑스 철학자, 과학자

발행인 선계훈 발행일 2019년 6월 발행처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편집장 김경숙 부위원장 이승연 편집위원 성은진, 이승혜, 문지혜, 이슬, 천국삼, 조수원, 이지민, 박현정, 한은경, 김세희, 이정하, 김혜정

전화 031-240-4062 팩스 031-245-3681 홈페이지 www.gglib.or.kr 디자인 신화프린팅





- 03 **내 인생 한권의 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
- 07 **테마기획**
소셜 미디어 4.7 인치의 세상
- 11 **청소년을 위한 직업이야기**
수많은 생명을 책임지며 지켜나가는 동물 전문가, 브리더
- 15 **도서관, 학교현장을 가다**
공동체 공감 성장이 있는 독서교육, 신양초등학교
- 19 **교실 속 토론 엿보기**
청평중학교 독서 팟캐스트반
- 23 **교과서 속 책이야기**
초등 4학년 교과연계 추천도서
- 27 **상황별 책이야기**
두근두근! 두려움에서 탈출하기
- 31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학교에서 함께 읽고 싶은 책 | 청소년
책이랑 나랑 | 어린이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일반
- 55 **책 읽는 스승 릴레이**
토마스 만의 "치열한 성찰과 담대한 사랑의 아름다움" | 정발중학교 이도홍 선생님
- 59 **친구가 권하는 책**
효원고등학교 친구들이 권하는 책
- 64 **학교도서관과 함께하는 경기교육도서관**
경기교육도서관 - 교육지원청 -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사람이란

그 얼굴이나 용맹이나
조상이나 문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다만 독서한 학문인이라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다.

공자 孔子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학자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9 SUMMER

내 인생 한권의 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

책과 기억, 그리고 풍경



기억이란 장롱 뒤나 침대 바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양말 한 쪽 같은 것이다. 거리에서 마주친 여인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샴푸 향에 그 향을 좋아했던 사람이 떠오르고 팔랑팔랑 스쳐가는 주황색 치맛자락에 바닷가에서 보았던 노을이 연상되며 짙은 먹빛 밤하늘에 오래전 방문한 로마의 콜로세움 밤하늘이 오버랩 되는 것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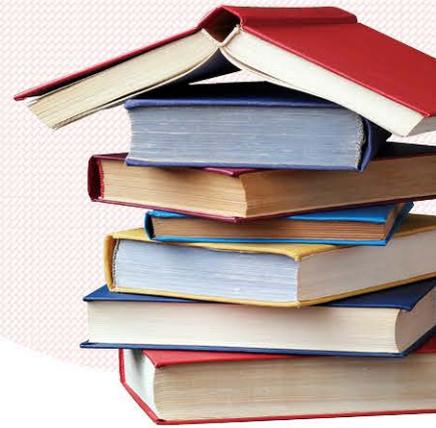
그런 내 기억은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책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져 있다. 순간마다 느끼는 생각이 다르고 그때마다 접한 책이 다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내 인생 전체를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마다 나와 함께 내 삶을 채워주었던 몇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여러 형태로 나눠져 그것이 동물에 대한 애정이든, 꽃을 보고 느끼는 기쁨이든, 비 오는 날의 커피향이나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의 구름을 바라볼 때의 행복감이든 모두 그리움을 동반한 사랑으로 책과 얽혀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내 세상은 온통 만화책에 대한 그리움이다. 어떤 작가였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하는 것은 만화책을 보지 말라는 어머니의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이불을 토끼굴처럼 만들어 그 속에서 국방색 미제 손전등을 켜 채 만화책을 보다가 어머니의 불심검문에 걸려 만화책을 몽땅 빼앗기던 기억, 그 만화책이 모두 불쏘시개로 들어갈 때의 쓰라린 추억, 다시 만화책방 앞에서 배회하며 어떻게 하면 만화를 볼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 고전읽기 경시대회에 나갈 학생에 선발되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리스 로마신화나 위인전 등을 읽으며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질투, 인간의 운명에 저항하며 신과 다투는 인간의 투지, 또는 신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허무한 욕망과 맞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만화보다 더 중요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학소녀로 중학시절을 시작했다.

“내 기억은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책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져 있다.”



내 중학교 시절은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도 풍부해 혼자 책을 읽거나 또는 친구와 오래토록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대상으로 알리사와 제롬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해, 종교가 인간의 사랑을 구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의미에 대해, 세상의 도덕적 구속이나 전통에 반항하며 때론 괴로워하며 긴 시간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내가 다니던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채플시간이 있었고 대강당에서의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나 '좁은 문'이 내게 주는 의미는 더 강렬했다. 그래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서 뜨거운 열기에 찰쩍찰쩍 뛰면서도 욕심 때문에 지붕에서 내려올 수 없는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가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고 “도덕적 구속이나 전통에 반항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하며 내 자신을 인간의 본성과 본질 속에 놓아두는 것이 더 예술가다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기억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은 단연 도스토예프스키다. 먼저 톨스토이를 접하고 러시아문학에 심취해 있다가 '죄와 벌'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인공 이름조차 외우기 힘든 도스토예프스키의 저서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당시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념이나 관념이 중요하고 남보다 탁월한 초인이 있어 세상을 평정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죄와 벌'에 나타난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 살인을 해서라도 악한 노파의 재산을 가난한 여럿과 나누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에 대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벌'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몸을 팔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지만 영혼만큼은 순수한 소냐라는 한 여인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목적이 순수하면 수단은 정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람들의 변명이라는 것,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로 유배 가는 것이 벌이 아니고 자신이 저지른 살인 때문에 죄책감으로 스스로 고통 받고 불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진정한 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광장에서 자신의 죄(노파살인)를 고백하고 비로소 자유를 찾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면서 다소 광기 어린 내 사춘기도 자유를 찾았다.

대학시절은 학보사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연극반 동아리도 기웃거린 덕택으로 스타니스슬라프스키의 '배우수업'을 읽으며 배우로서의 뜨거운 삶을 함께 꿈꾸었다.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밋밋한 내 인생을 아르바이트라는 새로운 경험

으로 채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옷집이나 카페에서 일했다.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내 인생에서 최초로 돈을 벌어본 시기였고 그 돈은 매일 저녁마다 총장로에 위치한 서점에 나가 책 한편을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밤새도록 그 책들과 친구하며 아침을 맞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책에 대한 내 사랑은 계절마다 발간되던 '창작과 비평'을 검정색 하드커버로 되어 있던 전집으로 사게 되었을 때 그 때 느낀 뿌듯함과 기쁨이 내 인생 최고 정점으로 기억된다.

이제 어느덧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다른 몇 권의 책으로 내 나머지 인생을 말하기는 힘들다. 이제는 종이책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영화로, 전자책으로도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문학 강좌를 듣고 YouTube로 많은 사상가를 만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나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뤄지던, 열정과 욕망이 조금 비껴 간 이 나이엔 이런 글들이 눈에 들어온다.

눈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벼와 한 눈에 살게 된 것을 이유로
'잡'이라 부르는 미안하다
〈이쁘기만 한데...〉 이철수



테마기획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사서 **천국삼**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조수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라고 부른다. SNS의 시작은 포털 중심의 독점적 소통 생태계에서 탈피해 개방·공유·자율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블로그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이를 기반으로 한 SNS의 등장은 소셜 미디어의 확산 및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폭발적인 증가를 낳았다.

소셜 미디어 4.7 인치의 세상 (모니터 속의 사회)

인간의 삶 자체가 되어버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등장은 21세기 초 인간의 생활상을 확 바꾸어 놓았다. 출퇴근 전철 풍경에서 책 보다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사람이 늘었고, 결혼 청첩장은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통해 전달한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며 누리꾼들의 좋아요를 한몸에 받는 '좋아요충'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무차별하게 퍼지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는 말할 것도 없다. 그야말로 SNS가 인류의 생각과 방향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140자의 소통 : 트위터(twitter)

140바이트 한도 내의 단문으로 트위터에 연결된 사람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SNS. 트위터의 이용자는 주로 웹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tweets) 그 이용자들의 소식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용자의 허가 유무에 상관없이 추종 대상(following)과 추종(follow)관계를 맺어 추종자(follower)가 될 수 있다. 다른 SNS보다는 익명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정치적, 사회적)을 드러내는 경향이 많다. 140자 이내의 간단한 글을 적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SNS의 대표 플랫폼 : 페이스북(facebook)

전 세계 18억 명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이다. 마크 주커버그가 개발한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작은 사이트에서 출발하였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 현재 전 세계인들이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SNS로 발전하였다.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성격이 강하며, 자신의 인맥과 정보를 기반으로 지인을 만들어 가는 인맥 사이트이다.

정사각형 세상 : 인스타그램(instagram)

매일 1억 건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고 특성에 맞는 '태그'를 붙인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사진 검색을 통해 정보 검색을 대신하기도 한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보를 검색할 때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대신 인스타그램 태그를 이용해 검색하곤 한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은 가족, 친구와 공유하는 일상부터 유명 맛집, 여행, 취미 활동 등 다양하다. 인스타그램은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인 동시에 남들에게 과시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특징이 마케팅에 활용되어 브랜드나 제품을 홍보하는데 인스타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인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도, 유명인들이 사용한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1인 크리에이터, 1인 방송국 : 유튜브(YouTube)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업로드 및 시청할 수 있는 명실상부 전 세계 최대의 비디오 플랫폼이다. 만들어진 영상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이용자 모두가 영상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개인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경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 그리고 국가 간의 경계까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으면 일반인이 한순간에 셀럽이 될 수도 언론인이나 마케터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됐다. 개인이 만들어 낸 콘텐츠의 조회 수가 몇백만 뷰가 넘고,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유튜버들이 셀럽이 되고 있고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제 유튜브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일상적인 문화 현상을 넘어 비즈니스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긍정적 영향: 건강한 소통과 사회 참여의 확대

SNS를 활용한 '참여'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들이 평상시에는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들에 무관심하고 결속력이 약한 것처럼 보이거나 관심을 갖는 이슈를 발견하면 SNS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즉 SNS를 사용하면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시민의 삶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한 예로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금 모음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국내 정치, 경제, 연예계 중심으로 SNS 아이스버킷 캠페인 참여가 이루어졌고 모금액도 급증하였다. 태풍 곤파스가 북상하였을 때는 사람들이 SNS에 교통상황 정보를 올려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하였고 실종자나, 희귀한 혈액형을 구하는 등 우리들의 실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부정적 영향: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통의 양극화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년월일, 학교, 직업,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는 물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잠자는 소소한 일상생활까지 SNS에 기록하고 공유한다. SNS 공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친구'는 물론 '친구의 친구'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무한대로 전파되며, 이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사생활 엿보기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이용자 간 다양한 방식의 소통은 SNS의 핵심적 특징이다. SNS는 참여를 통해 관계를 다층적으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지인 간의 일대일 소통은 물론, 불특정 다수와의 일대다 또는 다대다 소통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확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SNS가 오히려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성향이 비슷한 동조 집단끼리의 네트워크만을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 고립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 즉, SNS를 통한 소통이 자칫 '끼리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동조자를 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는 한계를 지니며, 이러한 유사성향의 네트워크만 강화되면 집단이 더욱 양극화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 지금!

인터넷과 함께 성장하고, 어린 시절부터 단련된 정보 수집 능력으로 가상과 현실을 유연히 오가며 정보를 퍼 나르고 공유하는데 거침없는 SNS 세대들. 이 세대들은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생각과 정보들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상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소통 환경을 반영한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SNS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생산적인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추천영화

서치 12세 이상, 2018

아니쉬 차간티 감독 / 존 조, 테브라 매시 주연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느 한 가족이 있다. 친구 집에서 과제를 한다고 아버지와 연락을 한 딸이 부채중 전화 3통을 남긴 채 사라진다. 사건의 실마리가 딸의 노트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SNS가 우리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더 서클 12세 이상, 2017

제임스 폰숄트 감독 / 엠마 왓슨, 톰 행크스 주연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 '서클'에 입사하게 된 메이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CEO 에이몬의 철학에 매료된다. 전 세계인에게 24시간 자신을 생중계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한 메이는 모두가 주목하는 SNS 스타로 떠오르고, 서클의 핵심 인물로 성공가도를 달린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녀에게 감추고 있는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된다. SNS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는 오늘을 생각해볼게 만든다.

엔프리티 소셜 스타 15세 이상, 2018

맷 스파이서 감독 / 엘리자베스 올슨, 오브리 플라자 주연



쿨하고 예쁜 것만 즐기며 영화처럼 살고 싶은 잉그리드는 외모, 취향, 패션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워너비인 SNS스타 태일리를 필요로 하다. 그녀처럼 멋진 삶을 꿈꾸며 무작정 LA로 떠나 새 출발하기로 한다. 둘은 우연한 계기로 친한 친구가 되지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파편화된 대인관계 속에서 진실된 인간관계를 생각해볼게 만든다.

아메리칸 셰프 15세 이상, 2015

존 파브로 감독 / 존 파브로, 엠메이 안소니 주연



일류 레스토랑 셰프 칼 캐스퍼는 SNS로 음식 평론가와 실전을 벌이다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된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는 쿠바 샌드위치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되고 SNS 홍보로 사업은 성공하게 된다. 요즘 시대 SNS가 얼마나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보여준다.

소셜 네트워크 15세 이상, 2010

데이빗 핀치 감독 / 제시 아이젠버그, 앤드류 가필드 주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창립스토리이다. '5억명의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명의 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영화 포스터의 문구처럼,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좋아'는 많이 받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는 광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단편적인 인간관계의 허상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9 SUMMER

청소년을 위한 직업이야기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사서 **이지민**

나는 인간의 권리만큼
동물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수많은 생명을
책임지며 지켜나가는 동물 전문가

브리더

오늘날은 핵가족화로 가족의 개념과 정의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근에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반려라는 표현을 쓰며 인생의 동반자이자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동물에 대한 관심이 큰 오늘날 이와 관련된 직업도 각광을 받고 있다.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랑과 관리를 통해 우수한 자견을 탄생시키는 동물 전문가, 브리더를 만나보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일본견 보존회와 한국애견협회 소속으로 일본의 국견인 <시바견> 단독 견종 브리더 최이환이라고 합니다. 한국애견협회시바견심사위원, 일본견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시바나라>의 매니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브리더란 어떤 직업인가요?

A. 이미 일본, 유럽, 미국에서 브리더는 동물 번식의 전문적인 직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브리더란 견종의 혈통을 지키고 개발하기 위해 양질의 환경과 견종의 유전학, 견체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우수한 자견을 배출하여 동물(개)의 건강한 사회화를 위해 노력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일본의 국견인 <시바견>의 브리더로서 개체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핸들링(우수한 견종 특성에 적합한 운동, 훈련 등을 통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전람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Q. 우수성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반려동물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품종견이라고 속여 분양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유기견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유전적인 결함을 줄이기 위해 우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브리더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A.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 봄, 여름에는 새벽 6시부터 견(犬)의 관리를 시작합니다. 개별 운동장에 보내거나 산책을 시키고, 전람회 출진 목적을 갖고 있는 견들은 바이크나 자전거를 이용해 3km씩 뛰게 하여 오전 훈련을 합니다. 청결 유지를 위해 견장(개들이 지내는 장소)에 있는 편백나무를 모두 걸어서 교체하고 말리는 작업을 하며,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식기를 모두 소독하는 작업을 합니다. 정오까지 청소를 끝내고, 오전 관리처럼 오후 관리가 반복됩니다. 반복적인 관리 외에도 오후 시간에는 키우는 30여 마리의 개들의 털 관리, 영양제 먹이기, 내·외부 접종 등의 건강관리를 합니다. 새벽 6시에 견사 문을 열어 오후 9시가 되어서야 마감합니다.

Q. 브리더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1998년 처음 시바견을 키우며 시바견이라는 견종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좋아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다 평소 좋아하던 시바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국견인 시바견 전람회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전람회에서 본 시바견은 한국에 있는 시바견과는 외형부터가 달랐기에 전통적인 일본의 시바견을 한국에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본견 보존회 도쿄 산타마지부장이신 스승님에게 배움을 받아 현재 한국에서 시바견 브리더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Q. 브리더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또,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은 무엇인가요?

A. 해외의 경우 브리더 면허제를 실시해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복지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 브리더들이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 번식에 종사하지만, 아직 한국은 브리더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3월 21일 후로 가정견 분양을 불법화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물생산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동물생산업 허가 사항 또한 브리더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고 장소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브리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자격요건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외국보다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견종의 외형, 특성, 역사 등 그 견종의 모든 것을 공부하여 견종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수많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생활자체가 자신보다 개에게 중심이 될 때 브리더로서 자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견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한 명의 브리더로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강아지 공장과 같이 동물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교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개에 대한 지식 없이 수익만 좇아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속에서 무분별한 교배로 태어난 강아지들은 병에 쉽게 노출되어 버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혼종견을 품종견이라 속여 판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만 보고 책임감 없이 분양받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강아지라도 충분한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집안 가구를 물어뜯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공격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해서 나타날 경우 유기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개를 '판매', '구매'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분양하는 사람도 분양받는 사람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강아지 번식에 대한 제도화와 잘못된 번식에 대한 법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며, 브리더와 분양받는 사람 모두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이러한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 반려동물은 가족이며,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는 것은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견장에서 지내게 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배분하여 견장에서 먹고 마시고 쉬며 견장에서 지내는 것을 생활화하고 운동시간에는 견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견장 생활을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과의 불화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매일 산책을 시킴으로써 요구성 짚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견장 속에서 지내는 것이 가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 안에 풀어놓는다고 해도 자유를 주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일 뿐 견장 생활화와 반려동물과의 산책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브리더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A. 견사를 확장해서 양질의 외형과 올바른 성품을 갖춘 건강한 자견들을 지금보다 많이 배출하고 싶고, 개는 브리더의 생명이라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브리더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브리더라는 직업은 견종의 건강한 혈통을 지키기 위한 직업입니다. 단순히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동물에 대한 엄격한 배움과 생명을 책임지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직한 신념과 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표정, 몸짓, 행동에서 알 수 있는 106가지 강아지 마음
다윤, 일파소
2019



강아지의 탄생
임수미, 루비박스
2018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
셀리나 델 아모, 리젠크
2017



애견교육의 정석
이종세, 조이독
2016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9 SUMMER

도서관, 학교현장을 가다



신양초등학교 윤현주 선생님

참·멋·꿈이 있는 행복한 신양교육
공동체 공감 성장이 있는 독서교육

해누리 도서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신양초등학교는 2010년에 개교와 동시에 도서관 문을 열었다. 2019년 현재 총 31학급(특수학급 포함) 750여 명의 학생들과 66명의 교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해누리 도서관이라는 이름은 밝은 해와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햇살처럼 밝은 미소로 신양가족의 꿈을 온누리에 펼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어서와~ 해누리 도서관은 처음이지?

도서관은 5층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교실 5.6칸(372m²)으로 매우 넓은 공간이다. 양쪽 벽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있어 채광이 좋고 환기가 잘 되어 공기가 좋은 날에는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넓은 공간이라 타인에게 구애 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도 충분하고, 편안하게 신발을 벗고 기대서 볼 수 있는 꾸러기방도 마련되어 있다.

도서관은 놀이터!

도서관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4월 책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여름·겨울 독서교실, 독서의달 행사, 원화전시, 영화상영 등의 다양한 행사로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 아이들에게 열려있다.



열람공간



꾸러기방



원화전시



독서의 달 체험활동



책의 날 체험활동

콩콩! 도장을 찍자_독서 스탬프

도서관을 스스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독서습관이 안되어 있는 아이들을 도서관에 발을 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스탬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도장쿠폰처럼 올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 목표 기준에 도달하면 시상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장을 매일 하나씩 찍으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아이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 독서 스탬프가 독서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즐거운 책놀이터

1-2학년을 대상으로 매달 1차시씩 책놀이 수업을 통하여 독서 흥미를 높이고, 3-6학년은 그림책을 통한 독서토론 수업을 진행하여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토론시간이 책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또한 교과특성화 수업으로 20여명의 4-5학년 학생들이 <SLOW 책새김 독서논술교육>을 통해 말함, 글힘을 키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천천히 즐겁게 읽어가기_슬로리딩

도서를 1-2권 선정하여 1년 동안 국어시간에 함께 읽어가며 활동하는 한 학기 한 책임기 활동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빛깔있는 학년 슬로리딩> 천천히 깊이 읽는 수업을 통하여 '더 많이' 배우기보다 '더 깊이' 배움을 추구하는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 지성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5학년 슬로리딩 도서인 <푸른사자 와니 니>의 이현 작가를 초청하여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책의 저자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함으로써 슬로리딩이 더 친숙하게 다가왔다. 5학년 아이들과 학부모 독서동아리, 교사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서로 다른 느낌의 와니니를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북(Book)적 북(Book)적 독서교실

신양초는 양곡중, 양곡고등학교와는 연계형 혁신학교로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함께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매년 7월에 <북적북적 독서교실>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책을 통해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나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이 되어 서로 문제를 풀어가며 도서관탈출을 하는 게임도 하고 책을 읽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토론하며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써 한걸음 성장하고 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



다문화 수업

책으로 이어진 만남

<책 읽어주는 선배>라는 프로그램은 6학년이 1-2학년 교실에서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고 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활동이다. 그림책을 읽어줌으로써 서로 몰랐던 6학년과 저학년들이 서로 알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3년째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독서동아리는 아이들의 슬로리딩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책을 통해 학부모 간,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연결 고리가 된다. 또한 양곡중학교 학부모 독서동아리와 함께 연합하여 활동함으로써 더 큰 만남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교사 독서동아리 또한 각자의 일에 바빠 여유가 없던 학교생활에서 책을 통한 마음의 여유를 찾는 활동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꿈을 위해 책을 읽다_경기김포교육도서관 독서 연계 프로그램

다문화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많은 편이다. 경기김포교육도서관의 지원으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진로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문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꿈을 위해 책을 타고 날다”라는 주제로 책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의 독서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힐링의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체감되었다.

지역도서관과 함께하기

방학이 되면 학교는 학기 때와 전혀 다르게 한산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도서관 또한 그렇다. 방학 중에도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기에 도서관에 방문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학교와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은 오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학교도서관보다 가까운 곳에 바로 지역도서관인 양곡도서관이 있다. 방학 중에는 양곡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더 폭넓은 독서문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9 SUMMER

교실 속 토론 엿보기



청평중학교 독서 팟캐스트반

팟캐스트로 함께하는 또래독서 토론일지



시간 가게 이나영 지음



“시간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추억도 소중합니다.”



남궁선경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독서 문화 만들기 “청평중학교 도서관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소민

저희는 오늘 시간 가게라는 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나영작가님이 지은 책으로 제 13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남궁선경

이 책은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윤아**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주인공이 학원을 가던 중 우연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분께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는 시간 가게의 광고지를 보게 되어 찾아 갑니다. 시간 가게 할아버지는 윤아에게 하루에 한번, 행복한 기억을 하나 팔면 오직 나만 쓸 수 있는 10분이 생기는 시계 얘기를 해줍니다. 늘 시간이 아쉬웠던 윤아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와 기억과 시간에 관한 거래를 하며 시계를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윤아에게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계의 버튼을 누르면 10분간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간이 멈추게 된다는 시계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그 시계로 윤아는 친구의 시험지를 베껴서 전교 1등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사용할 때

마다 행복한 기억은 하나 둘 사라지게 되어 할머니와 친한 친구 다현이와의 기억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윤아는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시간 가게를 찾아 가게 되고 이번에는 시간을 주고 다른 사람의 기억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 시험 시간에 10분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의 기억이 들어오게 되어 결국 시험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맞게 됩니다. 윤아는 다시 시간 가게를 찾게 되고 거기서 시계를 깨부숨으로써 시계와의 인연을 끝내게 됩니다. 마침내 윤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황소민

이 책은 시계를 사서 고민하며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윤아를 통해 시간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추억도 소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꼭 대가를 치러야 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는 주인공 윤아처럼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궁선경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만약 윤아였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소민이는 전단지를 보고 호기심에 시간 가게에 갔다면 시계를 샀을 것 같나요?



황소민

저는 '이게 진짜 될까?'라는 의문과 호기심에 구입했을 것 같아요.



남궁선경

저도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 어떤 기억을 주고 어디에 사용하고 싶나요?



황소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던 기억을 주고 아침에 시간을 멈춰서 10분간 더 잠을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기억이 조금 아깝기는 하네요. 선경이는 어떨까요?



남궁선경

저는 무대에 오르는 걸 좋아하는데 예술제 때 친구들과 무대에 오르는 순간을 주고 시험을 알리는 시작종이 울리기 직전, 시간을 멈추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시험지를 보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 소중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어요.



황소민

이렇게 보니 저는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선경이는 행복한 기억이 사라졌을 때 행복한 기억을 사고 싶나요?



남궁선경

저는 제 기억이 아닌 걸 알았으면 안 샀을 테지만 제 기억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면 샀을 것 같아요. 제 행복한 기억을 다시 돌려준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소민이는요?



황소민

저는 안 샀을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은 어차피 다시 올 거고 행복한 기억은 다시 만들면 되기에 굳이 시간을 주면서까지 사고 싶지는 않아요.



남궁선경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잠깐 쉬는 타임으로 이야기 중의 일부를 읽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민

저는 윤아가 시간을 주고 행복한 기억을 사게 되었을 때가 기억에 남아 읽어드리려 합니다.

『시간 가게』(153~154p 황소민 낭독)

내가 십분을 팔면 행복한 기억이 하나 들어오는 거였다. 물론 시간을 살 때처럼 하루에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어떠니?”

할아버지 눈이 빛났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주 조금의 시간만 팔면 될 것이다.

“네, 제 시간을 팔고, 행복한 기억을 살게요.”

“그래, 탁월한 선택이야.”

할아버지가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었다.

시간 가게에서 나와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약한 바람이 불어오기가 싫더니, 몸 안으로 쭉 움 들어왔다. 차과에서 마취를 하면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몸이 점점 굳는 것 같았다.



황소민

저는 이 부분이 윤아가 겪은 가장 큰 사건이고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문구가 이제 다시 행복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오기에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남궁선경

저는 윤아가 기억을 샀지만 그게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져있는 윤아의 심리가 나타나는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가게』(187~188p 남궁선경 낭독)

난 1등을 위해 달렸다. 1등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내 미래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다.

엄마가 웃는 걸 보고 싶었다.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었다.

그래서 시간을 샀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전교 1등을 했다. 그런데 시간을 살수록 외딴섬에 갇힌 것처럼 무서웠다. 생각해 보니 과거의 시간들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었다.



P.S. 이 내용은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 [팟빵 <http://www.podbbang.com>] 청평중학교 도서관 팟캐스트 <17회 시간 가게>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궁선경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윤아였지만 아직 속은 어리다는 걸 보여준 내용인 것 같고, 윤아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헤쳐 나가려는 모습이 잘 나타난 것 같아서 이 내용이 기억에 남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그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행한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용기를 내는 모습에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황소민

두 장면 말고도 좋은 부분이 아직 많기에 다들 더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남궁선경

이 책을 통해 시간의 소중함, 기억의 소중함,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에 대해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황소민

이상으로 청평중학교 도서관 팟캐스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책,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평중학교는 가평군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9 SUMMER

교과서 속 책이야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김세희**



초등 4학년 「국어·사회·과학」 교과연계 추천도서



책, 즐겁게 읽는 법 | 박동석 | 봄별 | 2018 |

연계교과 국어, '한 학기 한 권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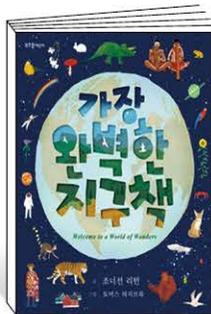
지루하고 따분한 책읽기는 이제 그만, 즐겁고 재미있게 골라서 읽자!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독서 안내 지도서이다. 책을 선택하는 것조차 어려운 독서 초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8개 장르의 대표적인 책을 활용하여 각 장르별 특성과 접근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어 직접 고른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책 아저씨가 전해주는 '독서꿀팁'이 즐거운 독서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1+1 이 공짜가 아니라고? | 이정주 | 개암나무 | 2018 |

연계교과 4학년 2학기 사회 2.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배우는 생생한 경제 이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제 상황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 책이다. 공짜쿠폰은 정말 공짜인지, 왜 더 비싼 브랜드 제품을 사고 싶어지는지 등의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올바른 경제관념의 형성을 통해 주체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경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장 완벽한 지구책 | 조너선 리턴 | 라이카미 | 2016 |

연계교과 4학년 2학기 과학 4. 화산과 지진

놀라운 행성, 지구에 온 걸 환영해요! '가장 완벽한 지구책'은 지구과학, 생물, 세계지리, 사회문화, 환경 등 지구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여행을 통해 지구의 경이로움과 소중함을 깨닫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아름답고 상세한 그림은 책을 통한 간접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초등 4학년 「국어·사회·과학」

교과연계 추천도서 목록



교과	서명	저자	발행자	발행년
국어	3.1운동, 그 가족에게 생긴 일	고수산나	내일을여는책	2019
	안이 궁금했을까 밖이 궁금했을까	이묘신	청년사	2019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김기정	한권의책	2019
	정약용이 귀양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김숙분	가문비어린이	2019
	초록 양	다이애나 김튼	샘터	2019
	1930, 경성 설령당	조은경	머스트비	2018
	1등 용이가 사라졌다	윤숙희	나무생각	2018
	끝나지 않은 진실 게임	전은지	밝은미래	2018
	딸가닥딸가닥	김명희	청개구리	2018
	소녀 H	신소영	고릴라박스	2018
	위대한 모험가들	앨리스테어 험프리스	애플트리태일즈	2018
	직업을 파는 상점	조경희	M&Kids	2018
	책, 즐겁게 읽는 법	박동석	봄별	2018
	책을 살리고 싶은 소녀	클라우스 하게루프	알라딘북스	2018
	내 이름은 플라스틱	정명숙	아주좋은날	2017
	네 머릿속엔 뭐가 들었니?	황서영	청개구리	2017
사회	수리가족 탄생기	황종금	파란자전거	2019
	1+1이 공짜가 아니라고?	이정주	개암나무	2018
	4차 산업혁명	이현희	서유재	2018
	남자답게? 여자답게? 그냥 나답게 할래요!	최형미, 이향	팜파스	2018
	방구리	최은순	스펀북	2018
	성 평등이 뭐예요?	제랄딘 맹상	개암나무	2018
	안녕, 세계의 친구들	마이아 브라미	샘터	2018
	어린이 세계시민학교	박지선	파란자전거	2018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초등성평등연구회	우리학교	2018



초등 4학년 「국어·사회·과학」
교과연계 추천도서 목록



교과	서명	저자	발행자	발행년
사회	할머니의 마법수레	조연화	청개구리	2018
	땅에 사는 아이들	정세연	내일을여는책	2017
	미래를 살리는 착한 소비 이야기	한화주	팜파스	2016
	복작복작 세상을 바꾸는 법칙	박동석	봄별	2016
	어린이 토론학교 : 돈과 경제	김지은, 권이은, 주정현	우리학교	2016
	어린이 토론학교 : 학교와 가족	권이은, 주정현	우리학교	2016
	소녀소년 평등 탐구생활	양해경	파란자전거	2013
	안드로메다에서 찾아온 사회 개념 1	김진욱	과학동아북스	2013
과학	(3·4학년이 꼭 읽어야 할) 교과서 과학 동화	이봉	효리원	2018
	거울과 렌즈는 마법이 아니야! : 빛의 반사와 굴절	아나 알론소	알라딘북스	2018
	과학 잘하는 40가지 비밀	롭 비티	부즈뎀어린이	2018
	나 좀 살려 줘! 환경과 쓰레기	허정림	아르볼	2018
	대비해! 대피해! 지진과 안전	신방실	아르볼	2018
	반려식물 키우기	강지혜	상상의집	2018
	선인장은 어떻게 식물원에 왔을까?	정병길	철수와영희	2018
	어린 왕자와 알록달록 숲속 친구들	에이치비	한국독서지도회	2018
	왜? 하고 물으면 과학이 답해요 : 화학	정성욱, 이재아	다락원	2018
	자연사 박물관 : 생명 관찰 실험실	DK자연사박물관편집위원회	비룡소	2018
	지구가 좌충우돌	오주영	상상의집	2018
	처음 만나는 야생화 그림책 : 가을	마에다 마유미	길벗스쿨	2018
	처음 만나는 야생화 그림책 : 봄 · 여름	마에다 마유미	길벗스쿨	2018
	들썩들썩 우르르 쾅! 우리를 위협하는 자연재해	정영훈	뽕치	2017
	자연재해로부터 탈출하라!	최영준	비룡소	2017
	가장 완벽한 지구책	조너선 리턴	라이카미	2016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9 SUMMER

상황별 책이야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이승혜**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이정하**

“무섭다고 느껴지는 고민이 있나요?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 봐요.”

두근두근! 두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린이

실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요?



클레어 프리랜드 | 뜨인돌어린이 | 2019

실수할까 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작은 실수에도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 실수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 책은 실수로 인해 좌절하기보다는 실수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면서 더 단단해진 나를 만나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또 무서운 꿈을 꿴어요



파키타 | 풀빛 | 2019

오스카가 지각을 했다. 이유는 무서운 악몽을 꾸서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다. 무서운 꿈은 끔찍하다는 오스카를 위해 선생님은 악몽에 대한 수업을 하기 시작한다. 오스카는 친구들과 함께 악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악몽을 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을 생각한다. 오스카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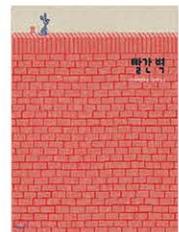
무섭다고 숨지 마!



자넷 A. 홀스 | 책속물고기 | 2018

아이는 학교에 괴물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얼굴을 감추고 악어가면을 쓴 채 학교에 간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른 아이들도 제각각 가면을 쓰고 있다. 괴물이 악어가면을 쓴 주인공에게 다가오는데...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을 보면서 오히려 괴물을 무서워하지 않을 용기가 생긴다. 두려움속에 숨겨진 용기를 찾아보자.

빨간 벽



브리타 테켄트럽 | 봄봄 | 2018

꼬마 생쥐는 빨간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고양이, 곰, 여우, 사자에게 물어본다. 하지만 벽 너머는 위험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벽 너머를 궁금해 하지 말라고 한다. 생쥐는 포기하지 않았다. 벽 너머에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다. 혹시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무섭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면 생쥐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혼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햇빛같이 따뜻한 위로가 되는 책”



청소년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크리스티나 드 워타 | 리듬문고 | 2019



누군가에게 거절하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는가? 이 책은 나의 거절로 인해 상처받는 누군가보다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한 일에 걱정하게 될 나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고민이 있다면 읽어보자.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이 편안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나는 왜 자꾸 눈치를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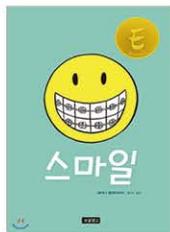
캐티 케이, 클레어 시프먼 | 리듬문고 | 2019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세 소녀들의 자신감은 그 이전 시기보다 30%나 낮다고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친구관계에서 오는 고민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10대 소녀들의 자신감은 많이 떨어져 있다. 이 책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세 친구의 사례를 통하여 10대 소녀들이 소심한 소녀가 아닌 자신을 신뢰하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도와준다.

스마일

레이나 텔게마이어 | 보물창고 | 2019



평범함 중학생 레이나에게 앞니 두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치아 교정을 시작하면서 입속이 비틀어지는 아픈 고통과 함께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의 태도가 레이나를 더 아프게 한다. 외모에 자신이 없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레이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외면보다는 내면에 점차 집중하게 된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웃을 수 있게 되는지 책으로 만나보자.

왜 그러세요, 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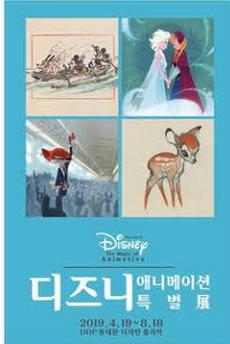
전국 중고등학생 89명 | 창비교육 | 2018



시험, 성적, 공부...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꾸기보다는 해야 할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현실에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다. 좋은 성적만을 바라는 어른들에게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하며 성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학생들의 진심어린 이야기를 들어보자.

Healing, 기대되는 전시

EXHIBITION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展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 세대에게 사랑받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오리지널 작품이 전시된다. 원화, 스케치, 컨셉 아트 등 약 50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핸드드로잉 원화와 제작 과정 영상들을 통해 100여 년에 걸친 애니메이션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 기간** 2019. 4. 19.(금) ~ 8. 18.(일)
- 시간** 오전 10시 ~ 오후 8시(금, 토, 일 및 공휴일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오후 9시까지)
-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문의** 02-325-1077~8



더 뮤즈 : 드가 to 가우디

드가, 밀레, 가우디, 쇠라, 무하, 마티스, 고흐 등 19세기 예술 거장들의 작품을 색다르게 느껴볼 수 있는 전시이다. 19세기 예술작품에 21세기 기술을 더하여 관람자들은 오감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각 거장들의 색과 영감을 느끼고 교양도 쌓을 수 있는 미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 기간** 2019. 5. 21.(화) ~ 2020. 2. 16.(일), 매주 월요일 휴관(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운영)
- 시간** 오전 11시 ~ 오후 8시(금, 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오후 9시까지)
- 장소** 더 서울라이트움
- 문의** 02-1811-9915



에릭 요한슨 사진展

스웨덴 출신의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전 세계 최초 대규모 전시이다. '상상을 찍는 사진작가'라고 불리는 그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직접 촬영한 작품 요소와 그의 상상력과 표현력, 그리고 포토샵 능력이 만나면 현실에서 불가능한 세계가 사진 속에서는 가능한 세계가 된다.

- 기간** 2019. 6. 5.(수) ~ 9. 15.(일),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휴관
- 시간** 오전 11시 ~ 오후 8시
-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문의** 02-837-6611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9 SUMMER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목록

학교에서 함께 읽고 싶은 책 | 청소년

책이랑 나랑 | 어린이

행복한 책읽기 속으로 | 일반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목록



청소년							
No.	분야	서명	주제	저자	발행자	발행년	추천인
1	문학	페인트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	이희영	창비	2019	중앙 전세진
2	문학	시작은 언제나 좋다	설레이고 찬란한 그 모든 시작에 부치는 이야기	전재우 외	21세기북스	2018	화성 이유진
3	문학	서울 사는 외계인들	상처받은 이들이 나누는 공감과 치유	이상권	자음과모음	2018	과천 이명진
4	고전	운영전	젊은 남녀의 금지된 비극적 사랑이야기	임치균	아르볼	2017	과천 김성민
5	고전	호밀밭의 파수꾼	10대 사춘기 소년의 성장기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민음사	2009	광주 조광현
6	고전	무소유	따듯한 시선으로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방법	법정	범우사	2004	학습관 이진형
7	인문	방탄 차력사의 오늘 이야기	역사를 통해 우리시대 살펴보기	차경호	노느매기	2018	의정부 천국삼
8	인문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수업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록, 헌법 이야기	신주영	들녘	2018	포천 박현주
9	인문	한입에 꿀꺽! 뉴스 속 세계사	뉴스를 통해 역사 들여다보기	공미라	탐	2018	김포 최문정
10	교육	몰입 영어	궁극의 영어 공부비법	황농문	위즈덤하우스	2018	중앙 김지선
11	교육	꿈 같은 거 없는데요	타고난 적성을 통한 나만의 진로탐색	강지원	쌤앤파커스	2018	성남 임수정
12	사회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	유영근	웅진지식하우스	2019	김포 김경주
13	사회	미래 부의 이동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짜 부자 이야기	신지나 외	한스미디어	2018	화성 박하상
14	사회	인권연대의 청소년 인권특강	인권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 삶의 선택과 나아갈 방향	김형수 외	철수와영희	2018	과천 최영심
15	교양	청소년을 위한 콰이어트 파워	조용한 아이의 부드러운 강점	수전 케인 외	RHK	2018	포천 오유능
16	교양	너희들의 미래 보고서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사회 미래 전망 보고서	오승현	위즈덤하우스	2019	중앙 박혜영
17	과학	먹고 보니 과학이네?	십 대를 위한 맛있는 과학이야기	최원석	다른	2019	성남 서승원
18	과학	과학, 사춘기를 부탁해	과학으로 설명하는 사춘기 과학 처방전	오윤정	탐	2018	과천 황미자
19	과학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과학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과학기술 이야기	한근우	사과나무	2018	학습관 박주희
20	과학	10대의 뇌	인간 뇌 성장 이야기	프랜시스 젠슨 외	웅진지식하우스	2018	중앙 이승혜

※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목록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홈페이지(www.gglib.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어린이

No.	분야	서명	주제	저자	발행자	발행년	추천인
21	문학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	아이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학교생활 이야기	세인 페이스리	책과공나무	2019	학습관 김덕순
22	문학	내 이름은 이강산	일제 강점기 창씨개명에 얽힌 아픈 우리 역사	신현수	꿈초	2018	광주 박윤아
23	문학	핑스	선택의 어려움과 중요성	이유리	비룡소	2018	포천 성봉근
24	문학	유튜브 스타 금은동	유튜브 제작 이야기	임지형	국민서관	2018	김포 박현정
25	문학	여섯 번째 바이올린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성장 이야기	치에리 우에가키	청어람아이	2018	과천 김영우
26	문학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자신감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글쓰기 비법공개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2018	중앙 장주택
27	역사	여기가 상해 임시 정부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임시 정부 이야기	장성자	바우솔	2018	화성 김세희
28	역사	박물관이 살아있다	역사와 과학이 살아 숨 쉬는 박물관 이야기	배성호 외	웅진주니어	2018	여주 유희연
29	사회	빈곤	풍요의 시대에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의	윤예림	풀빛	2018	성남 남유라
30	사회	개가 말하는 친구 사용법	친구를 사귀는 방법	기타야마 요코	스콜라	2018	평택 구승연

일반

No.	분야	서명	주제	저자	발행자	발행년	추천인
31	문학	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들의 이기심	심윤경	한겨레출판사	2019	성남 조선경
32	문학	좀도둑 가족	가족의 진정한 의미	고레에다 히로카즈	비채	2018	의정부 이경소
33	인문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	아마구치 슈	다산초당	2019	광주 김인석
34	인문	우린 너무 몰랐다	격동의 근현대사 진실을 찾아 역사 바로 세우기	김용욱	통나무	2019	학습관 심미자
35	교육	혼자서 공부 해봤니?	나를 발전하게 하는 혼자 공부하는 힘	모토야마 가쓰히로	북클라우드	2018	여주 이지민
36	교육	4차 산업 혁명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	전진한	다림	2018	과천 정영숙
37	사회	100세 수업	100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EBS <100세 쇼크> 제작팀 외	월북	2018	광주 이정하
38	사회	BTS 마케팅	방탄소년단의 성공 신화를 통해 보는 경영 지침서	박형준	21세기북스	2018	중앙 김봉화
39	교양	방구석 미술관	모더니즘 미술과 소통하기	조원재	블랙피쉬	2018	평택 이슬
40	과학	진화의 배신	현대병으로부터 우리 몸 보호하기	리 골드먼	부키	2019	중앙 성은진

※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추천도서 목록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홈페이지(www.gglib.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소년 1 • 문학



페인트

이희영 | 창비 | 206쪽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전세진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이야기한 책**



부모를 직접 면접 보고 점수를 매겨 선택할 수 있다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색다른 발상에서 시작된 이 소설은 제1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페인트’다.

부모가 없는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정부에서 국가의 아이들로 직접 보호한다는 흥미로운 상상이 배경이 된다. 남북 종전 선포 이후 감축한 국방비를 투입해 NC센터를 만들고, 나이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각 시기에 맞는 교육으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센터에서 관리되어 자란 아이들은 단계별 면접을 통해 부모를 점수 매기고 각자에게 꼭 맞는 부모를 찾아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사회로 나갈 수 있다. NC 출신의 아이들을 입양한 양부모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아이를 잘 낳지도, 낳아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회를 배경으로 충분히 일어날법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페인트’는 소설 속에서 부모 면접을 뜻하는 아이들끼리의 은어인 동시에 부모나 자식이나 다 고유의 색이 있으니 그 색을 내색으로 물들이기보다 존중하며 서로 어울려 또 다른 제3의 아름다운 색을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작가의 의도를 품고 있기도 하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모, 좋은 부모란 어떤 조건을 갖춘 부모일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자식일까.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서로를 존중하고 노력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청소년 2 • 문학



시작은 언제나 옳다

전제우 외 | 21세기북스 | 272쪽
실례이고 친란한 그 모든 시작에 부치는 이야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이유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언제나 선택과 시작이 반복되는
 우리에게 건네는 현실적인 조언과 용기의 메시지**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라고 했던가. 정말 매순간이 선택에 선택이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의 연속선상에서 누군가는 다소 예측 가능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험에 다가선다. 책의 저자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다 후자로 돌아선 케이스였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무작정 사표를 던진 것도 아니다. 저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그만큼 준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 책이 좀 더 와 닿았던 건 마냥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 정도 준비와 용기는 갖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도전이 아니더라도, 들어가고 싶은 학교, 갖고 싶은 물건,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위한 준비. 그것이 곧 모든 해법의 ‘시작’일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사소한 것의 해법으로 시작해 점점 더 큰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 자연히 용기도 자라며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매 순간 선택해야 한다. 스스로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는 자에게 인생은 열려있다. 시작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두렵지 않은 이유는 시작은 행복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꿈꾸는 자에게 말해주고 싶다. 시작은 언제나 옳다고...



서울 사는 외계인들

이상권 | 자음과모음 | 256쪽
 상처받은 이들이 나누는 공감과 치유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이명진

어린 시절의 상처로 외부와 단절한 채 살아가는 '사우'가
 문맹인 '찐레꽃 씨'와 교류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



주인공 사우어 어린 시절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도 주변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어, 중학교 자퇴 후 자신을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이라 여기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다. 그러던 중 마당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안주인 찐레꽃 씨와 만나게 된다. 당당하고 묘한 기품이 있는 찐레꽃 씨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사우를 보지 않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 주고 이해해 준다. 그래서 사우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된다.

찐레꽃 딸인 미미가 이사를 온 사우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지 찐레꽃 씨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 그 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 나비들도 저런 시기가 있잖아? 애벌레로 살다가 고치를 만들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혼자 웅크리는 시기가 있잖아? 그 시기가 지나야 화려한 나비가 되잖아?”

일반적으로는 대화조차 잘 통하지 않을 10대 소년과 50대 중년여성이나 나누는 우정을 통하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각자의 상처를 떨쳐 낼 수 있도록 하는지 섬세하게 보여 준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서툰고 아픔에 내던져진 우리는 모두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같다. 애벌레같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준다면 화려한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치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한 오늘,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운영전: 왜 금지된 사랑에 빠질까?

임치균 | 아르볼 | 160쪽
 젊은 남녀의 금지된 비극적 사랑이야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성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금지된 사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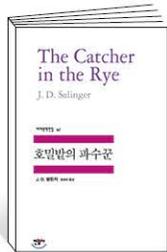


어느 시대에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오랫동안 회자되어 오고 있다. 이 책은 신분상 이루어질 수 없는 궁녀와 양반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해피엔딩 일색인 여느 고전 소설과는 다른 애달픈 사랑에 대한 여운을 주고 있다.

운영은 안평대군의 궁녀로 수성궁에서 갇혀 지내는 생활을 한다. 그러던 어느날 안평대군이 여러 선비를 불러 글을 쓰고 읽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때 운영과 김진사는 우연히 만나게 되고 편지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간다. 둘은 궁녀와 양반이라는 신분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은 안평대군에게 발각되고 둘은 도망칠 계획을 세우다가 실패하게 된다. 안평대군은 운영의 죄를 크게 벌하지는 않았지만 운영은 스스로 자결을 택하고 김진사도 운영의 뒤를 따르게 된다.

시대·제도적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말이었다. 안평대군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의 억압과 신분·제도적 제한은 그 시대에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젊은 남녀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 순간 화사하게 피었다가 지는 봄꽃처럼 운영과 김진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잠깐이나마 찬란하고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었다. 이러한 사랑이야기가 책 속에 시로 나타나면서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청소년 5 • 고전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 민음사 | 286쪽
10대 사춘기 소년의 성장기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조광현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도기의 10대
 사춘기 소년 콜필드의 퇴학 후 뉴욕 여행을 통한 성장기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당시 좋아했던 소설가와 많은 사람의 추천
 멘트, 그리고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을 암살한 마크 채프먼이 암살
 직후까지도 즐겨 읽었던 책이라는 것 등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콜필드의 냉소적 농담에 미소 짓게 되고 어느덧 자신의
 청소년기 모습이 투영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주인공 콜필드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명문학교에 다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낙제하고 결국 퇴학을 당한다. 그리고 집으로 바로 돌아
 가기 싫어서 며칠간 뉴욕을 떠돌며 여행을 한다. 사춘기 시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그 역시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사회의 모든
 면을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며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외로움이 가득하다. 콜필드는
 동생 피비로부터 느낀 아이들의 순수함을 어른들의 사회로부터 지켜
 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파수꾼을 자처하며 우선적이라고 비웃
 았던 사회에 점차 적응하려 한다.

사춘기 아이들은 자신은 이미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를 비웃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남아있어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만, 아직 마음속의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한다.
 물론 이 시기에는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이 책을 곁에 둔다면 현재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를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6 • 고전



무소유

법정 | 범우사 | 160쪽
따듯한 시선으로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방법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이진형

나를 얽매는 소유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지침서



오래전 법정 스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법정 스님의 의자'를 본 적이
 있다. 법정 스님이 장작으로 만들었다는 의자. 작고, 낡고, 불품없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의자. 그 의자에서 스님의 소박한 일상, 검소
 함, 실천적인 무소유 삶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은 그 작고 불품
 없는 의자에서 책을 읽고, 쉬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그 의자를
 보는 것만으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무소유는 법정 스님이 1976년에 발표한 수필집이다. 스님은 입적
 하면서 “내 이름으로 출판된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그 후 그의 책들은 전부 절판되었다. 투병 중에도 “일체의
 장례 의식을 행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삶을 실
 천하였다. 무언가를 갖는다는 건 다른 한편 그 무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라고 했다. 뉴스를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불법과 범죄를 자행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다 가진듯한
 그들이 초라하고 불행해 보인다. ‘버림’으로 나를 얽매이는 것들에게
 서 벗어나는 것도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한 방법일 것이다.

이 책의 문장은 한 줄 한 줄 짝 찬 느낌이 없다. 곳곳에 여백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스님만의 여유와 정갈함이 채워져 있어 읽는 자체만으
 로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법정 스님의 삶은 요즘 트렌드
 인 미니멀라이프,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청소년 7 • 인문



방탄 차력사의 오늘 이야기

차경호 | 노느매기 | 360쪽
역사를 통해 우리시대 살펴보기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사서 천국삼

현대의 사건으로 과거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이 책은 역사를 가르치는 차경호 선생님이 대구 MBC라디오에 출연하여 변화와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오늘의 역사를 모은 이야기이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해석하고, 역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방탄 차력사의 오늘 이야기는 촛불 혁명, 잃어버린 시간, 민주주의, 독립운동으로 현재부터 과거까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목차 아래 하나의 사건을 소개한다. 현시점의 사건을 주목하고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저자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촛불 혁명이 세계가 주목한 비폭력 시민운동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지켜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최고의 정치형태이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인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와 이를 지켜내고자 했던 사건, 희생한 의인을 기억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대한 독립을 위해 김구, 안중근, 윤봉길, 김원봉 등 수많은 독립 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의 시사적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역사 속 교훈을 찾아 미래를 전망해 보는 책의 구성을 통하여 역사에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8 • 인문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수업

신주영 | 들녘 | 324쪽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록, 헌법 이야기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박현주

다양한 사례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배우는
청소년을 위한 헌법 이야기



흔히 헌법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딱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헌법은 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이 책은 20년 차 변호사인 작가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다. 헌법을 노래로 만들었다. 이제는 헌법이 친숙하게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책은 '헌법의 탄생과 구조', '헌법의 전문과 총칙', '시민의 기본권', '헌법 기관들'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첫머리에서는 해당하는 헌법 조항을 소개하고 있는데, 책 내용과 연결하여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책에서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부터 저항권 및 사회적 기본권까지 다양한 헌법의 원리에 관해 설명하면서 각 원리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국민주권,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개념들 모두 끊임없는 역사적 투쟁과 저항의 산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아버지들이 남긴 가장 값진 유산'으로 여기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다시 한번 헌법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 나에게 상속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유산의 귀중함을 알고 성숙한 주권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청소년 9 • 인문



**한입에 꿀꺽!
뉴스 속 세계사**

공미라 | 탐 | 223쪽
뉴스를 통해 역사 들여다보기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사서 최문정

**무심코 지나치는 뉴스 속에
숨어있는 세계사를 설명해 주는 책**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어디에서나 뉴스가 넘치는 세상이다. 우리는 뉴스를 어딘가를 오가는 이동 시간에 보기도 하고 식사할 때 틀어놓기도 한다. 큰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잠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심코 넘길 때가 많다. 뉴스는 우리 일상과 사건의 또 다른 기억으로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역사를 소비하기도 한다. 역사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 시대의 이슈들을 엮어놓은 것이 바로 역사이며 그것을 매스미디어로 전달하면 뉴스가 되고 신문이 된다.

이 책은 뉴스를 통해 세계사를 설명해 준다. 현재 시대와 역사 속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사건을 보면 '역사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는 말이 이토록 와 닿을 수가 없다. 또한 역사책에서만 볼 때는 쉽게 휘발되는 역사 속 사건들이 현재와 이어지니 뇌리에 깊숙이 남는다. 정치·국제, 경제, 사회·교육, 문화·스포츠·과학, 종교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흥미 있는 분야를 찾아 읽기도 좋다.

책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단어의 유래나 역사 속 사건들의 비하인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책을 읽고 기회가 될 때 유식함을 뽐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넘치는 뉴스들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역사의 한순간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뉴스와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청소년 10 • 교육



몰입 영어

황농문 | 위즈덤하우스 | 244쪽
궁극의 영어 공부비법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김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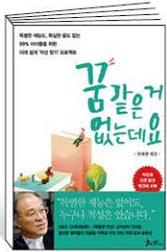
**황농문 교수가 직접 실천하고 검증한
무한 반복 학습법이 주는 놀라운 영어 학습법**



우리나라 학부모가 자녀의 영어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20년 가까이 영어 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영어 울렁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황농문 교수는 우리의 읽기·쓰기 위주의 시험 대비용 영어 교육 방식을 지적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암묵기억' 학습법을 강조한다. 영어 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자동적·즉각적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암묵기억 회로를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식 영어 공부의 악순환을 끊고 영어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영어가 즐거워지는 7가지 방법, 몰입 영어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 찾는 법, 처음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7단계 학습법을 소개하고, 말미에는 영어 회화에 필요한 필수 단어와 문장만을 골라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몰입영어 실천편>을 제공한다.

영어시험 성적이 아니라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들, 올바른 영어 공부법을 몰라 막막한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 말문이 열리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들 등 영어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어 공부의 길잡이가 되어 줄 이 책을 추천한다.



꿈 같은 거 없는데요

강지원 | 쌤앤파커스 | 280쪽
 타고난 적성을 통한 나만의 진로탐색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임수정

재능은 없어도, 적성은 있다!
평범한 아이들을 위한 미래 설계 적성 찾기 프로젝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던 중 한숨 자고 일어나도 이길 것으로 생각한 토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북이에게 졌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튼튼한 뒷다리로 강충강충 뛰는 적성을 가진 토끼와 딱딱한 등껍질을 지고 엉금엉금 기는 적성을 가진 거북이는 애초에 대결 상대가 아니었다. 토끼와 거북이는 너무나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북이와 토끼도 그러하듯 허물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람은 타고난 적성이 모두 다르다.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모두를 똑같이 규격화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이어진다. 이 책은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길지 않은 소주제 챕터를 통해 제시하고 중간중간 학부모와 교사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한 Q&A를 수록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제로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

“사람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이 적성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청소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있는 본인만의 적성을 발견해서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

유영근 | 웅진지식하우스 | 300쪽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사서 김경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서구 민주주의 역사 설명 및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거의 매일 민주주의란 단어를 접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의 가치는 잘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렵게 뿌리를 내려왔는지, 그 과정과 이면의 사건들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청소년기의 자녀들과 함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일찍이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각 유적지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 이면에 숨겨진 사건들을 친절하게 설명함으로써 서구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접근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제 책장을 넘기면서, 저자와 두 자녀가 다녀간 여행지를 따라가 보자. 프랑스 콩코르드 광장과 개선문에서 시민혁명군의 진군 모습을,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논쟁을 벌이는 의원들의 상기된 얼굴을 떠올려 보자.

이 책은 청소년들이 서구 민주주의와 배경 역사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쓰였다. 청소년들이 이 책을 완독하고 나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한층 더 인식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 13 • 사회



미래 부의 이동

신지나 외 | 한스미디어 | 196쪽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짜 부자 이야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박하상

ICT와 인공지능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의 개념과 변화에 대한 예측 소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빠른 속도로 ICT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사람의 노동력이 중요했지만, 지능정보사회로 접어든 지금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의 노동력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 이에 일한 시간과 양에 비례해서 부를 쌓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가치', '역량', '수단' 등이 등장해서 이전과는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달라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간의 두뇌에 버금갈 만큼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2017년 12월 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인류의 일자리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8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였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주변의 패스트푸드점, 카페, 영화관 등에도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전문가들은 인간 고유의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의 개념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예측하여야 한다. 이 책은 10대인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유망한 직업을 통해 부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청소년 14 • 사회



인권연대의 청소년 인권특강

김형수 외 | 철수와영희 | 256쪽
인권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 삶의 선택과 나아갈 방향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최영심

장애, 페미니즘, 불평등, 고전 공부, 평화, 남녀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 만들기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는 아마도 '혐오'라는 단어인 것 같다. '남혐', '여혐', '극혐' 등. 언어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혐오가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문제를 혐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인권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장애, 페미니즘, 불평등, 고전 공부, 평화, 남녀의 인권이라는 6가지 주제를 나누어,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의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소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가지만,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화하듯이 써내려간 문체와 다양한 실제 사례들로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입문서로서 청소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인권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편에서 영화배우 엠마 왓슨의 연설 중 한 대목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페미니즘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청소년을 위한 콰이어트 파워

수전 케인 외 | RHK | 376쪽
조용한 아이의 부드러운 강점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오유능**

**내성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내향성이 가진 큰 힘을 일깨워주는 책**



‘괜히 말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나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럴 바에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겠어.’ 내향형의 사람들은 무언가 발언해야하는 상황에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내향적인 성격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활발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친구들과 만남 뒤에는 왠지 모를 피곤함이 몰려온다. 언제부터인가 외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의 표상처럼 평가받고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성격이 흠일까? 이 책은 내향적인 성격이 자책하거나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애플 창시자 스티브 워즈니악,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내향형의 능력자들을 예로 들어 이 성격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내향형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팀 과제, 토론 시간 등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타고난 성향에 대한 오해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해 소심하고, 말이 없고, 이상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학생이 있다면, 혹은 내 아이가 내성적인 자신의 성격을 비판한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통해 고독한 아웃사이더의 숨겨진 집중력과 창의력이 커다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너희들의 미래 보고서

오승현 | 위즈덤하우스 | 119쪽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사회 미래 전망 보고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박혜영**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을 바라보고,
 청소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1984년에 개봉된 영화 터미네이터의 배경은 2029년. 그 당시에는 영화 속 내용이 대단히 먼 미래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2019년도에 살고 있다. 미래가 오늘이 되어버린 지금, 영화처럼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인공지능로봇에 의해 인간이 지배되고 있진 않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회 곳곳의 변화들은 마치 터미네이터의 존재를 알게 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대처할 틈을 주지 않고 우리 곁에서 한 걸음 앞서가며 빨리 따라오라 한다. 아직 현실 파악도 못 했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꿈꾸라고 한다. 그런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에 앞서 냉정한 현실 세계와 마주해야 한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저성장 등 뉴스를 통해 매일 접하는 사회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나의 미래와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려면 현재의 한국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민얼굴을 마주한 순간 헬조선이라는 말을 새삼 깨닫게 될 지도 모른다.

꿈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나이인 청소년들에게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에 우리 사회는 너무 각박해졌다. '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적나라한 우리 사회의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

청소년 17 · 과학



먹고 보니 과학이네?

최원석 | 다룬 | 224쪽
 심 대를 위한 맛있는 과학이야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서승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통해
 알아보는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우리의 삶은 음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요즘은 먹방, 쿡방이 대세다. 이처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건강한 음식이다.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이 같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먹고 싶은 음식과 건강한 음식의 사이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정으로 잘먹고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음식에 대한 괴담 및 공포를 부추기는 사이비 과학에 맞설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우리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즐기는 일상적인 음식을 통해 과학 지식을 알려준다. 우리는 막연하게 인스턴트 식품은 나쁘고 자연식품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햄버거와 콜라가 정말로 정크푸드인지, MSG는 먹으면 안되는 건지, 유기농은 무조건 좋은 건지를 과학적으로 짚어주고 있다. 그리고 각 장마다 '맛있는 실험'으로 사과즙과 양파즙의 비교, 달고나 만들기 등을 통해 재미있게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맛있는 인문학'에서는 음식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와 최신 이슈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과학과 인문학의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음식에 대한 즐거움과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 준다.

청소년 18 · 과학



과학, 사춘기를 부탁해

오윤정 | 탐 | 160쪽
 과학으로 설명하는 사춘기 과학 처방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황미자

사춘기 시절 이해 안 가는 행동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춘기 과학 처방전



사춘기라고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반항이 심하고 일탈을 서슴지 않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난다. 인터넷이나 TV에서 어른들이 할 만한 일들을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사건들을 보며 사춘기를 딱히 겪지 않은 나로서는 요즘 청소년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못마땅해 하며 질타를 하곤 했다.

그러던 차에 만난 「과학, 사춘기를 부탁해」는 사춘기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왜 변화하는지를 풍부한 과학적인 지식과 사례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차성징으로 나의 몸이 낯설어지는 것은 성호르몬에 의한 것이고 청소년기에 늦잠을 자는 것은 잠을 자는 패턴이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수면 패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충동성이 강한 것은 감정을 대표하는 변연계가 뇌 사령탑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사춘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사춘기 변화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준 이 책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낯선 변화와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므로써 타인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과학

한근우 | 사과나무 | 312쪽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과학기술 이야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박주희

**미래 자동차를 연구하는 저자가 들려주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흥미로운 과학이야기**



과학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굴러다니고, 날아 다니는 모든 것들에는 과학이 숨어있다. “과학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진보시켰나?”라는 저자의 물음에서 시작된 이 책은 우리 주변에 움직이는 것들에 관한 역사와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지구상 도처에 도구로 사용할 만한 재료들이 널려 있지만, 인간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생물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만들거나 가공하는 일 없이 대부분 단순한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류는 발명이라는 행위를 등에 업고 발전을 거듭하며 여기까지 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 문명의 발명과 혁신의 흔적을 뒤쫓으며 땅, 물, 하늘, 미래 이 네 가지를 모티브로 움직이는 것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인류를 바꾼 최고의 발명품인 바퀴의 탄생부터 고대의 선박과 진화의 과정, 하늘의 문을 연 라이트 형제, 미래형 꿈의 자동차인 자율주행 자동차, 시간 여행자가 될 수 있는 타임머신까지.

인류는 거대한 자연 앞에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을 발휘해 도구를 만들고 끊임 없이 창조해내는 일련의 과정들이었다. 불가능한 모든 것이 실현되는 오늘날 과학의 한계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인류가 어디까지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지 더 기대가 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10대의 뇌

프랜시스 젠슨 외 | 웅진지식하우스 | 360쪽
인간 뇌 성장 이야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이승혜

**인간의 뇌가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고,
 10대의 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소개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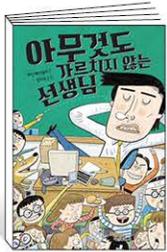


청소년 시절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사람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한다. 10대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이고, 잘 집중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에 쉽게 이끌려 행동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청소년의 뇌는 기능, 배선, 능력 모든 면에서 성인의 뇌와 다르기 때문이다. 성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많은 10대가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 또한 갑작스러운 자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10대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대의 뇌는 80%밖에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나머지 20%의 뇌는 배선이 영성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 20%의 영성한 부분이 청소년의 불확실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아이의 10대 시절은 참고 견뎌야 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녀들이 평생에 걸쳐 사용할 뇌의 기틀을 잡아주는 기회이다. 10대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한 단계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과 감정을 보이는 것은 청소년의 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절의 뇌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 10대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대와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같이 읽으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이 21 • 문학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

세인 페이스리 | 책과공나무 | 160쪽
 아이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학교생활 이야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김덕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의 특별한 수업방식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

...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기에만 바쁜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공부하지 말고 그냥 신나게 놀기만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학교 다니면서 누구나 한번쯤 꿈꿔 왔을 것이다. 이 책은 학생들이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준다. 새학기 첫날 새로 온 담임 선생님이 일 년 동안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이 시작된다. 절대로 공부를 하지 말고, 숙제는 영원히 없으며, 책도 읽지 말고 그냥 놀기만 하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신이난다.

하지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놀기에 싫증이 난 아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을 어기고 공부를 하기로 한다. 모범생 토미를 선두로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공부할 방법을 찾는다. 아이들은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에 결국은 공부하기를 선택한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고 내린 결론이 놀랍다.

선생님 몰래 공부할 방법을 찾으려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방식을 깨우치면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된다. 경쟁자이지만 서로의 공부를 챙겨주면서 지식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소중한 경험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된다. 공부에 싫증난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어린이 22 • 문학



내 이름은 이강산

신현수 | 꿈초 | 100쪽
 일제 강점기 창씨개명에 얽힌 아픈 우리 역사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박윤아

일제 탄압의 정점 창씨개명,
 그리고 평범한 소년 이강산 이야기

...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중요한 이름을 빼앗긴 슬픈 역사가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이 시행되었다. '창씨개명'이란 우리 고유의 성씨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탄압했던 일제의 악독한 정책이었다.

이 책은 창씨개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교에 간 강산이는 으레 그렇듯이 '황국신민서사'를 읊으며 일본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천황 폐하를 향해 경례하는 '궁성 요배'를 드린다. 선생님은 그것도 모자라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학교에 올 수 없다고 한다.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 강산이는 얼른 일본 이름을 지어달라며 조르지만 할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족보를 보여주며 우리 민족의 부리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하지만 선생님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불러내 따귀를 때리고 이마에 커다랗게 가위표를 그려 집으로 돌려보낸다. 급기야 일본 순사들이 찾아와 막냇삼촌을 북간도로, 작은누나를 정산대로 끌고 가겠다고 가족들을 더욱 옥죄어 온다. 과연 강산이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강산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워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핑스

이유리 | 비룡소 | 148쪽
선택의 어려움과 중요성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사서 **성봉근**

낮선 우주에서 펼쳐지는
 12살 소년의 본격 SF 모험동화



핑스가 뭐지? 궁금한 것도 잠깐, 페이지를 넘겨보니 등장인물 소개란에 핑스와 여러 등장인물이 그림과 함께 친절히 설명되어 있다. 핑스에 대한 궁금증은 조금 해소됐지만 처음 보는 외계생물 론타와 스텔에 대한 소개는 생김새만큼이나 호기심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주인공 재이는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쌍둥이 동생 민이를 살릴 수 있는 우주 신약, 암브로시아를 구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우주여행을 떠난다.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재이는 우주 현상 수배범인 스텔이 잠입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냉동 캡슐에 보관된 동생 민이를 확인하려 갔다가 스텔일당이 동생을 납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 뒤를 쫓다가 납치당한다. 우주선 고장으로 외딴 행성에 불시착한 후, 냉동 캡슐을 열어보니 동생이 아닌 스텔일당이 잡아온 푸영인 아이 론타였다. 재이는 론타와 함께 스텔일당을 피해 탈출하면서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체로 알려진 신비의 새, 핑스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된다. 핑스의 눈물과 피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명약이었기에 스텔일당이 론타의 노래를 이용해 핑스를 잡으려고 행성에 왔다는 것이다.

재이는 론타와 함께 스텔일당으로부터 핑스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우주에서 개발했다는 신약의 원료가 바로 핑스의 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생 재이를 살릴 것인가, 평화를 지킬 것인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긴장감 넘치는 상황 전개와 신비한 공간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는 놀라움과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유튜브 스타 금은동

임지형 | 국민서관 | 176쪽
유튜브 제작 이야기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사서 **박현정**

금은동의 유튜브 촬영기를 통해,
 생각해보는 유튜브의 장단점



작년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초등학교생들의 장래 희망 순위를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5위에 올랐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개인방송, 리뷰 등의 동영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여, 또래들의 공감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금은동은 <작가초청시간>에 자신의 꿈을 발표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교 후,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컴퓨터의 유튜브 동영상상을 보다가 1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로 결심한다. 유튜브 만드는 법을 공부하고 '초딩의 일상'을 주제로 1인 방송국을 오픈하게 된다. 동영상상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고 영상을 재미있게 봐줄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던 중, 반 친구 정우가 올린 동영상상이 큰 인기를 얻는다. 금은동은 정우보다 높은 조회 수를 얻기 위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 '맥주 마시기', '문구점에서 물건 훔치기'라는 위험한 동영상상을 유튜브를 올리게 된다.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에 위험한 행동을 했던 은동이는 어떻게 될까?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도를 넘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도 있다. 유튜브 제작을 좋은 쪽으로 활용한다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확장하여 창의력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유튜브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어린이 25 • 문학



여섯 번째 바이올린

치에리 우에가키 | 청어람아이 | 32쪽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성장 이야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김영우

할아버지와는 추억 속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와 행복한 가족 이야기



「여섯 번째 바이올린」은 2017 에스라 책 키츠 상 수상작으로 주인공 하나의 이야기다. 하나는 유명한 교향악단 단원이었던 할아버지와 함께 한 추억을 기억하며 학예회때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로 한다. 간신히 음표 몇 개 켜는 수준이고 배운지가 얼마 안 되어 오빠들은 비웃으며 연주를 말린다. 하지만 하나는 용기를 내어 학예회 준비를 한다.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멋진 바이올린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책 제목 「여섯 번째 바이올린」은 하나의 학예회 순서이다. ‘악을 삼키듯 두려운 마음을 꿀꺽 삼키고 마이크 앞으로 나가 연주할 바이올린’이란 글귀는 하나가 연주 발표를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졌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당차게 용기를 내어 창의적으로 바이올린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우리는 잘하고 완벽 해야만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능숙하지도, 훌륭하지 않아도 용기를 내어 도전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그대로, 나답게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서툴지만 작은 용기로 바이올린을 연주한 하나의 실천 속에 가족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나의 연주가 더 무르익으면 모차르트, 멘델스존, 바흐의 작품도 만나게 되겠지? 책을 덮어도 절로 미소 짓고 기대되는 책이다. 배움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어린이 26 • 문학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프란치스카 비어만 | 주니어김영사 | 68쪽
자신감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글쓰기 비법공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장주택

스스로 글쓰기의 중요성과 죄를 벌하는 대신 배려와 용서로
 또 다른 기회를 준 가슴 따뜻한 이야기



「책 먹는 여우」의 두 번째 이야기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이 출간되었다. 책을 읽기도 전에 반가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 이 책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글과 그림엔 재치와 유머가 넘쳐난다.

이 책에는 아저씨만의 글쓰기 비법이 숨어있다. 그 비법은 주변의 일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우털 색깔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 이러한 작은 생활 속의 습관이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생쥐 몽털씨는 여우 아저씨가 모아둔 이야기들과 책들로 멋진 글을 쓰려고 하지만, 훔쳐온 남의 이야기로는 단 한 줄의 글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야기를 도둑맞은 여우 아저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훔친 도둑 몽털씨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오히려 글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훔친 벌로 도서관에서 사서의 일을 돕게 하도록 한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몽털씨의 재능이 발휘가 된다. 여우 아저씨는 무조건 벌하는 대신 기회를 주었고, 몽털씨가 성실히 일해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는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

인생에는 꼭 한 가지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연한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나의 적성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떤 의미 인지를 이 책을 읽고 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가 상해 임시 정부입니다

장성자 | 바우솔 | 100쪽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임시 정부 이야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사서 김세희

동화를 통해 배우는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을 지켜낸 용기 있는 '국민'의 이야기



'우리나라'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함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나라와 국가가 무엇이기에 이들은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지켜낸 것일까?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이들의 행동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라가 없는 삶이 어떠한지 상상조차 힘들다. 이 책은 '기선 이'를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나라 없는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 모두가 분노하고 좌절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낸다. 그리고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고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조상이 지킨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박물관이 살아있다

배성호 외 | 웅진주니어 | 168쪽
역사와 과학이 살아 숨 쉬는 박물관 이야기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사서 유희연

낮설고 어려운 박물관이 재미있고 알찬 곳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박물관의 세세한 이야기



박물관에 간다고 하면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괜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다. 박물관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여다 보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처럼 박물관도 천천히 오래 들여다보아야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3명의 아이들의 관점에서 박물관을 관람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그리고 박물관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 유물을 관람하는 방법과 예절, 유물이 전시되는 과정,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법, 박물관의 구조와 건축 등을 알려준다. 또한 관람객들에게 여러 가지 전시품을 선보이기 위해 박물관 곳곳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면서 그곳을 아이들이 탐험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박물관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알 수 있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브라질 박물관 화재를 떠올리며, 박물관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야만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박물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며, 전국에 있는 1,000개가 넘는 뚜렷한 개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이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린이 29 • 사회



빈곤

윤예림 | 풀빛 | 136쪽
풍요의 시대에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의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임유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상황 빈곤,
 빈곤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

빈곤이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식량이 없어 굶어 죽고,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아 병들어 죽는 것,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책에서는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세계의 다양한 빈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의 절대적 빈곤도 있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의 사회, 경제, 문화가 만들어낸 상대적 빈곤도 있다. 요즘은 상대적 빈곤이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만든 빈곤, 식민지 역사가 만든 빈곤, 세계화와 시장이 만든 빈곤, 경제발전과 성장이 만든 빈곤으로 챕터를 나누어 어린이의 시각에 맞게 다양한 예시와 설명으로 빈곤을 설명한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 왜 여전히 가난하고 갈수록 사회의 양극화는 심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책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의 빈곤은 단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총체적 난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라도 빈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지체할수록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굶어죽고 사회는 병들게 된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빈곤의 걱정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어린이 30 • 사회



개가 말하는 친구 사용법

기타야마 요코 | 스킨라 | 92쪽
친구를 사귀는 방법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구승연

개의 시선으로 바라본 친구 사귀는 방법과 오랫동안
 교우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법

...

학창 시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족? 공부? 미래를 위한 준비? 나를 되돌아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친구였다. 중요한 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것 역시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이었다.

이 책은 개의 시선으로 친구 사귀는 방법을 크게 사용 방법, 주의 사항, 관리 방법, 점검 방법, 수리 방법 등의 순서로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목차를 보면 전자제품 설명서 같다. 작가가 왜 이렇게 목차를 지었을까 생각해보니, 친구를 사귀면서도 단순히 사귀면 끝이 아니라 전자제품처럼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유발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목차를 쓴 것 같다. 사용 방법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과 더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주의 사항에서는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방법을 설명한다. 관리 방법, 점검 방법, 수리 방법에서는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싸웠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대상이 개라는 것이 더 재치있고 흥미 있게 다가온다.

대다수의 어린이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친한 친구와 같은 반이 될 수 있을지, 친구를 잘 사귄 수 있을지 걱정을 한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거나 친구를 사귀어도 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되지 않는 친구들에게 원만하고 올바르게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책을 추천한다.

일반 31 · 문학



설이

심윤경 | 한겨레출판사 | 280쪽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들의 이기심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사서 **조선경**

보육원 출신의 고아 소녀 설이를 통해 들춰내는
 현대 부모들의 위선과 가면



「나의 아름다운 정원」의 심윤경 작가가 17년 만에 새로운 성장소설을 들고 나왔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전작의 주인공 동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불행을 혼자 감당 하던 동구의 헌신과 사랑을 칭송만 했지 과연 그 아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작정을 하고 버릇없는 아이들을 내세워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자고 한다.

주인공 설이는 태어나자마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고 세 번의 입양과 파양을 겪었다. 설이는 어리숙하고 순진한 동구와는 달리 영악하고 되바라진 아이다. 상처받은 만큼 상처를 되돌려 줄 줄도 안다. 보육원을 나와 가난한 위탁모와 살아가던 설이는 우리나라 최고 부유층이 다닌다는 사립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등교 첫날부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동정과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설이는 상류층 가족들의 민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부모들의 천박한 이기심과 이중성을 보게 된 설이는 비난과 투쟁으로 어른들의 위선을 벗겨나간다.

부모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부모가 제시한 조건을 수행해야지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고아인 나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작가 자신의 가슴도 활꺾었다는 설이의 이 질문은 독자들이 책을 덮은 후에도 묵직하게 가슴에 남아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것이다.

일반 32 · 문학



좀도둑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 비채 | 280쪽
 가족의 진정한 의미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사서 **이경소**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인연을 맺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좀도둑 가족」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을 소설화한 책으로 소설가이기도 한 감독이 직접 쓴 책이다. 연금 부정 수급으로 사회 문제가 된 어느 가족의 사건 뉴스가 모티브가 되어 영화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풀고 싶은 감독의 생각에, 특이하게도 영화 후에 탄생한 작품이다.

남편이 남긴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하쓰에, 직업 없이 좀도둑질을 일삼는 아버지 오사무와 이를 돕는 아들 쇼타, 세탁공장에서 일하며 손님 옷 주머니를 뒤흔치는 어머니 노부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이복동생 아키에, 그리고 주워온 여동생 유리, 이렇게 여섯 명이 가족이 되어 산다. 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서로 인연이 되어 가족이 되었다. 엉망진창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은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지만, 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처가 있는 이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이들의 모습에서 일본과 닮은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떠올려보게 한다. 또한 가족이 해체되고 재생산되며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점들을 무겁지 않게 다루고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 아니기에 서로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 피는 성가시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하쓰에의 말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줄 것이다.

일반 33 · 인문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 다산초당 | 336쪽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김인석

세계 1위 경영·인사 컨설팅 기업 ‘콘페리헤이그룹’의 임원 자리에 오른 ‘야마구치 슈’가 건네주는 철학으로 재련된 삶의 무기들!



바쁜 일상에 파편화된 인간관계,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 거기에 맞춰 금세 흥망 하는 비즈니스 시장,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것들 간의 충돌. 우리는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예측하고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을 최선을 다해 모색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컨설턴트인 ‘야마구치 슈’는 ‘철학’을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렵고 고리타분하기만 한 철학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철학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우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열려있는 포도를 먹을 능력이 없자 “저 포도는 여차피 신포도이니 맛이 없을 거야”라며 자기합리화 하는 이야기를 알 것이다. 이런 합리화를 인지부조화라 부르기도 하는데 니체는 이것을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으로 칭하고 이런 태도를 경계한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태도로 자신의 무의식 속에는 스트레스만 가득 쌓일 것이다. 솔직한 태도로 직면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이 철학적 개념을 활용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생각, 사람, 조직, 사회와 관련된 문제에 50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하고 고단한 삶. 길을 헤매고 있는 당신에게 철학이라는 단단한 삶의 무기를 권한다.

일반 34 · 인문



우린 너무 몰랐다

김용욱 | 통나무 | 400쪽
격동의 근현대사 진실을 찾아 역사 바로 세우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서 심미자

해방 후 격동의 우리 근현대사의 두 가지 큰 사건을 바르게 인식하여 민족 분단이라는 근원을 바르게 알리는 도울의 역사서



해방 후 왜곡된 현대사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민족이 겪었던 전쟁과 분단이라는 아픈 비극의 역사를 되돌아 봐야 한다. 이 책은 그 격동의 시기에서 행해진 두 가지 큰 사건들에 대한 재해석으로 우리가 알 수 없었고, 잘 몰랐던 해방 정국과 제주 4.3.사건, 여순사건을 새롭게 재조명 해주고 있다.

사건의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을 통해 선입견을 버리고 바른 이해와 전달이,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인식의 변화를 가능케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알면 괴롭지만 알아야 하는 것이 해방기의 우리 역사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무지한 미국이 한국을 친미 세력권 아래 두려는 지배 욕구만 우선했고, 한국민의 삶이나 가치, 지향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미군정의 미곡수집령이 제주민중항쟁과 여순민중항쟁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다. 남로당의 정치적 공작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 당시의 민중에게는 남로당이니 우파니 좌파니 하는 이념적 이데올로기 보다는 오직 먹고 살아가야 하는 “쌀”이었을 뿐 공산 이념이 아니었다.

여순민중항쟁은 결코 군인들의 항명이 아니다. 항명으로도, 민중의 거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인식의 차이이며, 그 인식의 변화를 가능케 하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혼자서 공부 해봤니?

모토야마 가쓰히로 | 북클라우드 | 246쪽
 나를 발전하게 하는 혼자 공부하는 힘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사서 이지민

혼자서 하는 공부로 목표를 이룬 저자가 소개하는
 최고의 결과를 끌어낼 혼자 공부하는 방법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복잡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힘, 지식을 넘어 획기적인 발상을 도출하게 하는 힘을 주는 ‘혼자서 하는 공부법(혼공법)’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혼공법을 터득한 후 전교 300등에서 지역 1등이 되었고, 도쿄대 졸업 후 하버드 진학을 목표로 영어공부를 한 지 1년 만에 하버드에 합격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혼자 공부한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혼자 공부하는 것의 힘은 강요당해서 억지로 시작하는 공부 가 아닌, 나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배울 기회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경험에 빚대어 혼자 공부를 하는 목적과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으며, 공부하기에 앞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와 공부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법 등 여러 가지 혼공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왜 여럿이 하는 공부보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나을까? 어떻게 해야 혼자 공부하는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처음 공부습관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아이들과 성인이 되어 취업,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순간,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지쳐버린 순간, 이 책 속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는?

전진한 | 다림 | 232쪽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사서 정영숙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제4차 산업 혁명은 어느새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고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4차 산업 혁명을 떠오르게 한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들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언제든 밀려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단순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유능한 직업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소개, 현 교육의 실태, 직업의 변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총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직업’의 틀에서 벗어나 학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단순히 암기만 하는 공부 방법, 주입식 교육,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은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응하려면 자존감, 공감능력, 신뢰성, 도전정신을 키워야 한다.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미래시대에 적합한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반 37 · 사회



100세 수업

EBS <100세 쇼크> 제작팀 외 | 월북 | 216쪽
100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사서 이정하

EBS<100세 쇼크>제작팀이
진짜 100세의 삶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100세의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로 100년의 삶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크게 다가온다. 이 책에서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어른들은 어떻게 100세의 삶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책의 구성은 4번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수업은 노년의 생활 모습과 감정 상태, 두 번째 수업은 노인에게 대한 인식과 노후 준비, 세 번째 수업은 노인들의 취약한 실태와 노후 준비의 어려움, 네 번째 수업은 긍정적인 노년의 삶을 이야기한다. 책 속에서 노인이 왜 자기 말만 계속하고 고집을 피우는지, 왜 하지 말라는 힘든 일을 계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이가 드실 부모님을 상상하게 하며,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즐거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75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화가 그랜드마 모지스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에서 노년에는 이미 꿈을 이루었고 은퇴하고 편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잘 늙는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일반 38 · 사회



BTS 마케팅

박형준 | 21세기북스 | 272쪽
방탄소년단의 성공 신화를 통해 보는 경영 지침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김봉화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성공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안내서



언제부터인가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소식이 K팝에 전혀 관심 없던 나에게도 들려 왔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오르고 UN 연설을 할 정도이니 그 위상이 실로 감탄스러웠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BTS에 열광하며, 불리한 조건의 중소 기획사 소속 그룹이 어떻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이 책은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경영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저자는 BTS의 성공 요소를 타이밍, 타기팅, 완전완비제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4가지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세계 시장을 공략한 타이밍, 소수 폐쇄 집단에 집중한 타기팅, 대다수의 기업이 시장진입에서 겪는 캐즘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완전완비 제품,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될 수 있었던 화제성이 그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이들이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캐즘, 완전완비제품, 스니저 등 다소 생소한 마케팅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여러 기업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아이돌의 마케팅과 접목시켜 설명함으로써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챗터마다 요약을 통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경영에 관심 있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마케팅 교과서가 될 것이다.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 블랙피쉬 | 344쪽
모더니즘 미술과 소통하기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서 이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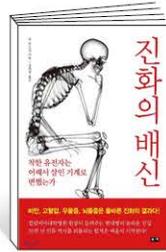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예술가와 마주앉아 듣는 그들의 삶과 작품 이야기



‘미술관을 동물원 간 듯 구경하고 나온다.’ ‘명화를 보아도 왜 명화인지 모르겠다.’ 소위 미술알못(미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흠칫했을 것이다. 일전에 마르셀 뒤샹의 작품전을 보러 갔다가 작품보다는 옆에 붙어있던 조각만 한 설명을 보기 위해 초면인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었던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은 하품만 하던 사람들이 손쉽게 미술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자 조원재는 미술 분야 팟캐스트 1위 「방구석 미술관」의 진행자로, 미술계의 거장인 피카소의 일대기를 마치 옆집 아저씨의 근황처럼 재미난 입담을 통해 전해준다. 미술계의 반항아 클림트, 잘 나가는 증권맨 고갱,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고흐 등 모더니즘 미술계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인간미를 담아 이야기한다. 학창시절 교과서 속 담겨져 있던 미술사가 예술가들의 수상 이력이라면, 이 책은 흠쳐본 예술가의 일기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활활 타오르는 노랑’, ‘형태의 엑기스’ 등 참신한 표현을 통해 그림을 음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과 손쉬운 어휘는 에드바르트 뭉크부터 마르셀 뒤샹에 이르기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미술관 가기가 예전만큼 어렵지 않기를 바라며, 내 인생에 위로가 되는 명화와 화가를 만나보기를 기대한다. 또한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소통하고 삶의 풍요를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진화의 배신

리 골드먼 | 부키 | 560쪽

현대병으로부터 우리 몸 보호하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사서 성은진

불확실하고 위험한 생태계에 적응하려고, 진화하기 시작한 유전자의 충격적인 이면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종의 멸망 없이 번성을 이루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수한 유전자도 분명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큰 사망 요인은 굶주림, 탈수, 폭력, 출혈이었다. 우리의 유전자는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기 시작했다.

진화의 결과, 굶주림을 대비해 필요 이상의 폭식을 하고,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출혈로 죽지 않기 위해 오히려 피를 응고시키고... 인류가 비명횡사 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유전자의 진화가 오히려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걸 진화의 배신이다. 과거 보다 세상은 안전해졌고, 전쟁 같은 위험한 상황도 이전과 비교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굶주림, 탈수, 폭력, 두려움에 대한 본능은 우리의 DNA에 내재되어 비만, 당뇨, 고혈압, 불안감,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장마비, 뇌졸중,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유전자 진화의 배신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저자는 현대 생물학과 의학의 발달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선택 적용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진화한 유전자의 배신 앞에서 우리의 건강과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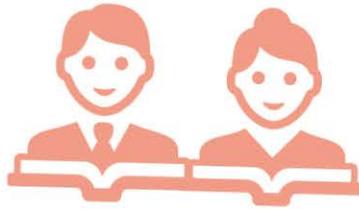
내가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 같지만
가끔씩 나에게 의미가 있는 대목,
어쩌면 한 구절만이라도
우연히 발견하면
책은 나의 일부가 된다.

윌리엄 서머셋 모음 William Somerset Maugham

영국 소설가, 극작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9 SUMMER

책 읽는 스승 릴레이



정발중학교 이도홍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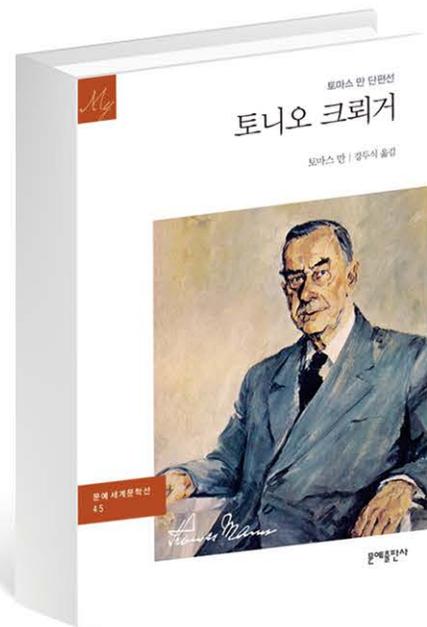
토마스 만의 치열한 성찰과 담대한 사랑의 아름다움



It is love, not reason,
that is stronger than death.

죽음보다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토마스 만



마흔아홉번째 스승릴레이 이야기

정발중학교 이도홍 선생님

치열한 성찰과 담대한 사랑의 아름다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토마스 만은 장편에서 단편에 아우라까지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나름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예술가로서의 자전적인 고민을 담은 소설 <토니오 크뢰거>를 함께 나눠보고 싶다.

토니오 크뢰거의 발자취

<토니오 크뢰거>의 주인공 토니오 크뢰거는 유서 깊은 가문의 영사(領事)인 아버지와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남미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다. 토니오 크뢰거는 세계를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느끼는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한 소년이지만 본인은 자신의 그러한 특별함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그의 청소년 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한스 한젠과 잉에보르크 홀름이다. 한스 한젠은 내성적이고 예술가적인 섬세한 기질의 소유자인 토니오 크뢰거와 달리 운동을 좋아하고 잘생겼으며 주위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사랑과 기대를 받는 인물이다. 또한 잉에보르크 홀름은 토니오 크뢰거가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나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그녀에게 상처를 받는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고 토니오 크뢰거는 소설가가 된다. 그러던 중 화가인 여자친구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를 사귀게 되는데 그녀로부터 ‘길 잃은 시민’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후에 여행에서 우연히 그는 청소년기의 두 친구 한스 한젠과 잉에보르크 홀름을 보게 되고 자신의 독특한 예술가적 기질은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에 고립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시민들과 함께 공존할 때 의미 있는 것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예술가의 참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

<토니오 크뢰거>에는 토마스 만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자전적 고민이 형상화되어 있다. 예술가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분명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특별함은 단순히 예술적 기교를 소유하는 것일까? 예술적 기교는 예술가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예술가에게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특별한 자신만의 ‘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지닌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예술가는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필부필부(匹夫匹婦)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독창적인 시선을 지닌 많은 예술가들은 그러한 자만에 빠져 자신이 더욱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토니오 크뢰거는 이 문제를 깊이 천착(穿鑿)한다. 소년기에는 자신의 독특한 시선을 폄하하고 세속적인 아름다움의 소유자인 한스 한젠이나 잉에보르크 홀름 같은 친구들을 동경하기도 한다. 예술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기 이후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세계를 독특하게 바라보는 자신의 예술가적 시선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니오 크뢰거는 자신의 특별한 관점을 맹신하지 않고 그 맹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본다.

예술가가 지닌 특별한 시선. 그 시선과 대치되는 필부필부들의 평범함? 그 평범함을 <토니오 크뢰거>에서는 '시민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뜩이는 예술가적 기질을 지니진 못했지만 이 세계를 채우고 있는 일상의 사람들. 그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한 그 평범함. 어릴 적 자신이 좋아했던 친구 한스와 첫사랑 잉에보르크는 토니오 크뢰거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시민성'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방향하다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난 토니오 크뢰거는 그들과의 재회를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러한 시민들을 사랑하며 함께 공존할 때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며 소설은 끝난다. 소설은 토니오 크뢰거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 하진 않는다. 이 작품은 예술가로서의 삶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술가를 넘어 이 세상 모든 리더들, 그리고 미래의 리더가 될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한 담대한 사랑. 이것은 비단 예술가에게만 필요한 덕목은 아닐 것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위해 필요한 치열한 성찰은 다른 이들을 이끌고 섬기는 리더에게도 분명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자신의 특별함과 평범한 시민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 역시 물론이다. 그 균형을 잡아야만 비로소 약자를 공감할 수 있는 소통력과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이게 나라냐'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도 그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면 결국 이러한 치열한 성찰이 부재한 리더들의 침묵과 위선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리더인 학생들에게 토니오 크뢰거의 삶의 자세는 분명 큰 귀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책 읽는 스승 (50호) 다음 주자

대화고등학교 최승후 선생님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 2019 SUMMER

친구가 권하는 책



효원고등학교 친구들

세상을 만드는 글자, 코딩



추천인 2학년 이찬혁

| 박준석 | 동아시아 | 2018 |

프로그래밍, 코딩 같은 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 최근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같은 단어들이 사람들의 귀에 쉽게 들어 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하지만 최근 코딩 의무 교육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컴퓨터 학원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나 역시 컴퓨터, 공학 분야에 관심이 없었을 때에는 이와 같은 말들을 들었을 때 생소하게 느껴졌고 전문가가 다루는 분야인 줄만 알고 있었지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 희망을 가지고 난 후에는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내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은 내가 다양한 공학 분야의 책을 찾아보고 읽어보던 중, 같은 꿈을 가진 친구와 함께 읽게 되었다. 두꺼운 분량이 부담이 되기도 하였지만, 흥미로운 제목에 이끌려 이틀 만에 책을 다 읽게 되었다. 책은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들을 소개해보자면 첫 번째는 <구글은 20억 줄도 넘는 글이다> 라는 부분이다. 코딩이란 프로그래머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 여러 가지 명령어 등을 한줄 씩 나열하여 코딩을 진행하게 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1,200만줄, 윈도우7은 4,000만줄, 페이스북은 6,200만 줄, 구글은 20억 줄을 쓴다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예술작품과 같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으며, 나중에 내가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를 진

행한다면 동료 프로그래머들과 소통과 협동이 참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내 말 좀 번역해줘!-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 라는 부분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해왔고 번역 방법에도 순차 번역과 전문 번역이라는 방법이 존재한다. 책을 읽을수록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C언어, 자바스크립트 같은 다양한 언어를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공중에 떠다니는 글자들>이다. 나의 진로 희망은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로, 통신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통신의 과정을 글자가 떠난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매력을 느꼈다. 단거리 전선 통신, 가시광 통신, 전파 통신, 네트워크 등 다양한 통신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음파 통신에 관한 부분에서 전자기기끼리 우리 몰래 음파로 얘기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독특하였고, 앞으로의 내 꿈에 대한 내용을 펼쳐 본 듯한 기분이 들어 몰입하여 보았다.

일단 이 책은 재미가 있어서 술술 읽힌다. 공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으며,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은 공학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꿈을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며, 다소 어려운 학문처럼 느껴지는 공학이 인공지능 시대에 친숙한 학문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이 분야에 쉽고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얘들아! 이 책 같이 읽자.



시간을 파는 상점 | 김선영 |

추천인 2학년 이혜영



누구에게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일 수도 있고, 소중하게 흘러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은 '시간' 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처럼 고민이 많은 시기에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시간을 허무하게 써버리지 말고 알차게 써야 그 시간이 가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야.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지 느끼게 해준 책이라서 추천하고 싶어.

아몬드 | 손원평 |

추천인 2학년 이재은



이 책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야. 소년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며 힘든 시절을 보내. 물론 소년은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 심지어 가족의 죽음에도 슬픔을 느끼지 못해. 그러다 곧이라는 아이와 엮이게 되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궁금하면 꼭 이 책을 읽어봐.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책이야.

유진과 유진 | 이금이 |

추천인 2학년 김효원



이 책은 뉴스에서도 종종 접하는 아동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야. 같은 이름을 가진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이는 어릴 적 같은 유치원에서 원장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해.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 다시 만나지.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은 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동안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너무 달랐고, 제 때 치유하지 못하고 굼은 상처는 결국 다시 덧나게 돼. 유진처럼 누구나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 이 책을 보며 우리들 마음의 상처도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장지글러 |

추천인 2학년 박상덕



전 세계 인구가 먹고 남은 식량이 생산되는데 왜 5초에 한명씩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까? 이 책에서는 전쟁과 환경난민, 식민지 정책, 정치·경제적 관계 등이 어떻게 빈곤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이 문제들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꼭 책을 읽어봐. 이 약속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동참하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리딩으로 리드하라 | 이지성 |

추천인 2학년 차수민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이라서 읽어 봤는데, 인문 고전을 읽은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 실제로 인문 고전을 꾸준히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도 나와 있어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어. 책속에 추천 인문 고전도 있어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야.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 | 박하재홍 |

추천인 2학년 류수현



혹시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꼭 이 책을 읽어봐. 돼지가 스스로 온 몸에 오물을 바를 수밖에 없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갖고 있던 편견을 깰 수 있을 거야. 또 이 책은 인간에 의해 고통 받고 희생당하는 동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그 폐해를 알리고 있어. 이 책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져 보면 좋겠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 방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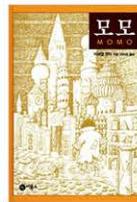
추천인 2학년 홍기수



요즘 우리들은 역사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과거의 독립 운동가들은 알지만, 오히려 근현대사에서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 이 책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어떤 위험 앞에서든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야. 그의 삶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모모 | 미하엘 엔데 |

추천인 2학년 박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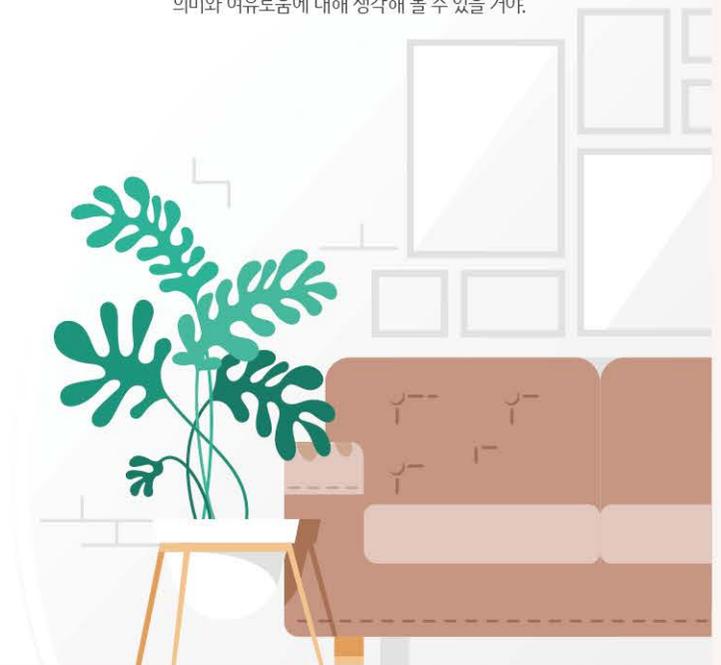
이 책은 수수께끼의 소녀 모모가 시간을 훔치는 회색 신사들에 맞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의 판타지 동화야. 상상의 세계를 몽환적으로 표현하고 흡입력 있는 전개가 읽는 사람을 빠져들게 해. 특히 이 책은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시간의 뜻을 구하는 모모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의미와 여유로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소년이 온다 | 한강 |

추천인 2학년 조성희



매년 5월이 되면 여러 매체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듣게 돼. 그런데 우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와는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무겁고 어려운 일이니깐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책을 읽으면 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책에는 1980년 5월, 우리 또래인 동호와 정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 후에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만약 나라면 동호나 정대처럼 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거야.





안나 카레니나(뮤지컬)

톨스토이의 완전무결한 소설이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다!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지닌 귀족부인 안나 카레니나의 앞에 매력적인 장교 브론스키가 나타
난다.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지만 사랑과 자유를 선택하여 떠나는 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순간순간 변화하는 감정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 기간** 2019. 5. 17.(금) ~ 7. 14.(일)
-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 문의** 02-541-6236



겨울왕국 : 디즈니 온 아이스(뮤지컬)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초대형 아이스 뮤지컬!
국내 천만 관객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겨울왕국>이 뮤지컬로 돌아왔다. 압도적인 스케
일과 화려한 무대영상, 특수효과가 만나 눈앞에서 '아렌델 왕국'이 펼쳐진다. <Let it go>,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Love is an open door> 등 명곡으로 손꼽히는
OST와 연출이 만나 뛰어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기간** 2019. 7. 31.(수) ~ 8. 11.(일)
- 장소** 목동아이스링크
- 문의** 1577-3363



쉬어매드니스(연극)

미용실에 들어선 순간, 당신은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자 탐정이 된다!
사건의 피해자는 미용실 위층에 살고 있던 유명 피아니스트 '바이엘 하', 형사들은
미용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관객들은 이를 지켜보며 목격자
이자 배심원의 역할을 한다. 당신은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할 것인가?

- 기간** 2015. 11. 12.(화) ~ 오픈런
- 장소** 콘텐츠박스
- 문의** 1644-5690

학교도서관과 함께 하는

경기교육도서관

신청방법, 운영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협력도서관으로 문의해주세요.

학교도서관 독서진흥 지원

내용 학교도서관 연계 휴먼북 라이브러리, 찾아가는 진로독서교육, 경기 자유학년제 연계 독서진흥 지원, 한 학기 한 권 읽기, 3일 3책 독서 나침반 등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유학년제를 지원하는 도서관 사서체험

내용 자유학년제 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관 문화 & 사서체험 프로그램

주제 도서관은?, 사서가 되려면?, 진로독서 어떻게 할까?

대상 중학생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내용 대상별 독서 자료를 선별하여 순회 대출 책 읽어주기, 책 놀이 등

대상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교과연계 도서목록 제공

제공자료 중학교 국어, 사회, 과학 연계 도서

내용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목록 게시

학교도서관 현장지원

내용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 실무지원, 이용자 교육

대상 희망학교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내용 학부모의 자녀독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강좌

대상 초등 새내기 학부모



협력체계



학생 중심의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 효율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경기교육도서관이 함께합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031)240-4031
 경기평택교육도서관 031)667-4207
 경기광주교육도서관 031)768-6923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031)882-1066

경기포천교육도서관 031)531-8751
 경기김포교육도서관 031)998-3538
 경기과천교육도서관 02)3677-0361
 경기성남교육도서관 031)730-3564

경기화성교육도서관 031)369-5731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031)827-9514
 경기평생교육학습관 031)259-1045



발간등록번호 71-7530463-000001-08
ISSN 1976-8907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2019 | Vol. 49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사서들이 만드는
학생중심 독서정보지

